UNDERSTANDING CHRISTIAN CONVERTS FROM SHINCHONJI:

PROVIDING PASTORAL CARE FOR LOST SHEEP

신천지로부터 회심한 성도 이해와 잃었던 양을 위한 목회적 돌봄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Sung Eun Lee

May 2018

This dissertation completed by

Sung Eun Lee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K. Samuel Lee, Chairperson

Namjoong Kim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8

ABSTRACT

UNDERSTANDING CHRISTIAN CONVERTS FROM SHINCHONJI:

PROVIDING PASTORAL CARE FOR LOST SHEEP

by

Sung Eun Lee

The Korean church has develop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However, it has experienced difficulty due to the appearance of heresies. Historically, heresies have existed since the Apostolic age and have used a variety of disguises. Korea has experienced a variety of heresies throughout its history, including Tong-il Kyo, Jundokuan, and Shinchonji.

Currently, Shinchonji is one of the strongest threats. It is seen as a group that is antisocial and unethical, and it has led to serious tensions within Korean society and families. Shinchonji is now considered a criminal organization. I hope this study can help Korean churches. Through my research, I analyze the heresy of Shinchonji, and in this project I reveal its reality, which goes beyond its heretical nature.

KEYWORDS: Heresy, Shinchonji, Korean Church, Conflict, Counseling, Healing, Care

SUMMARY

One of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Shinchonji. Another goal is to explore how the church can accept Christians who have delved into Shinchonji but then come back to the church. From these understandings, I propose pastoral ways churches can assist, heal, and restore those who reenter the church.

This study includes two interviews: one with a person who was once committed to Shinchonji but has now become a holistic Christian believer and the other with a person who is in the process of education to recover his faith. Before I conducted these interviews, I researched Dr. Young-Gweon Yoo's counseling theory for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Shinchonji. Through the interviews, I first looked at psychological factors commonly manifested by those who fall into heresy. Second, I analyzed to what extent these Christians fell into heresy because of the dissatisfaction they felt with their church lives. The interviews helped me gain a general understanding of Shinchonji, and thus I was able to find appropriate ways to respond to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The results of my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inisters of Korean churches must clearly understand the reality and heretical nature of Shinchonji, so they can actively respond to it and create a variety of prevention programs that will preclude its attractiveness to people. Second, ministers of Korean churches, when caring for people who have fallen into Shinchoinji, must become aware of several strategies they can use and provide care wisely. Third, ministers must become aware of the attractive factors of Shinchonji and create educational programs for those who return to church after experiencing Shinchonji, such as programs that aim to restore relationships or heal. Fourth, churches must utilize people who have experienced Shinchonji in providing pastoral care and prevention programs.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A. 연구의 문제제기와 목적

1. 연구의 문제제기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수정" 보도를 시작으로 2017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파문으로 인해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것은 영세교의 교주였다가 사이비 목사가 된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이용하여 빚어진 사태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25일 사과문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의 최종의견을 의존한 것으로 밝히고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2016년 11월 29일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정치권이 논의해서 국정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하고,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1] 결국 12월 9일 탄핵가결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이러한 국기문란은 수렴청정의 왕조국가에나 있을 일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이 사이비 종교에 의존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이비 종교들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온갖 비리적 행태들의 중심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에 온 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듯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는 한 개인과 가정을 몰락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를 혼란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사적 실체를 분노와 슬픔 속에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2]

---

[1] 최문선 and 서상현, " '국회가 정해달라' 퇴진마저 떠넘긴 朴대통령," *한국일보,* November 30, 2016, http://hankookilbo.com/v/a1713b7e779c4df88cd603c8cb5520f8.

[2] 허호익, *한국의 이단 기독교* (서울: 동연, 2016), 5.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신흥종교의 이단 또는 사이비 문제로 시비가 계속 야기된다. 신흥종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요즘은 그 숫자조차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대표적인 국내 이단으로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통일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만민중앙교회, 여호와의 증인, 예수중심교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두드러지게 교회와 가정과 사회로부터 지탄 받고 있는 이단 가운데 신천지가 있다.

신천지는 현재 교회를 와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을 넘어서 사이비 단체로, 신자는 물론이고 비 신자들에게까지도 강력한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세와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고 날로 확장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 나름의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견고한 교리체계로 무장되어 있고, 무엇보다 교활하다 할 정도로 교회에 몰래 잠입해 교회와 성도들을 잠식해가는 비성서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들만의 포교방식에 있다.

최근에 내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았다가 탈퇴하고 돌아온 성도들이 3명이나 된다. 그러나 확인된 것만 3명이지 아직도 신천지가 가르치는 성경공부에 열중인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다. 나는 본 연구를 통해 신천지의 실체를 해부하고 특별히 신천지 교육을 받다가 회심한 성도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잃었던 양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신천지'로 인해 신음하고 힘 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국교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기존 선행 연구를 보면,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과 현상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에만 그칠 뿐,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이단에서 회심한 이들을 상담했거나 그 상담을 통한 회복과 목회적 돌봄'과 같은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논문은 거의 드문 것으로 파악 되었

다. 무엇보다도 기성교회는 신천지에서 탈퇴한 후 교회로 돌아온 이들, 즉 잃었던 양들을 어떻게 상담할 것이며, 교회 내에서 이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이 논문이 조금이나마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B. 연구의 내용과 한계

신천지로부터 회심한 성도들을 상담하거나 목회적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신천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신천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만희가 신천지를 세우는데 영향을 준 주요인물들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맥락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저서와 자료집과 신천지와 관련된 단행본 및 논문들, 학술잡지, 그리고 TV로 보도된 내용이나 인터넷 자료(홈페이지 자료)등을 참고하여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에 대한 이해를 천착하였다.[3] 신천지의 현황과 교육방법 및 포교전략들에 대해서 살피고 신천지의 폐해와 핵심교리와 문제점들을 연구하였다. 특별히 신천지에서 성경교육을 받다가 돌아온 내가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 2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지식과 자료들을 연구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연구의 한계를 정한다면, 현재 내가 사역하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서 일어난 지역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신천지에 미혹 되었다가 회심하여 돌아온 교회 성도라는 연구대상의 한계가 있다. 이단으로부터의 회심자들을 인터뷰하며 연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이단 경험을 다시 들추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나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구자와 충분한 신뢰와 친분이 있거나

[3] 대부분 옛날 자료들이어서 안산상록수 교회의 이단 전문가 진용식 목사에게 부탁하여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얻었으나, 너무 오래된 자료들은 찾기가 힘들어 이 또한 자료의 한계도 있다 하겠다.

협조가능성이 높은 연구 참여자들로 선정하였다. 그래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신천지교육을 받고 회심한 성도들로 한정을 하고 그 기준을 정했다.

C. 선행연구

교회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다. 성서와 기독교 역사는 이단이 항상 교회안에 그 뿌리를 두고 발흥하고 소멸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신앙과 신학이 형성되었다.[4] 그리고 교회의 교리는 이단으로 하여금 더욱 정교화되었다. 이단은 끊임없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게 하고 더욱 분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단의 문제점들은 너무나 심각하다.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며, 교회를 넘어서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이단은 사회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더욱 발흥한다. 박탈감과 절망으로 인한 인간의 연약해진 심성과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이단은 그들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는 구원의 집단으로 위장한다.

현대종교의 탁지원소장은 2001년 교육교회에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외환위기 전에는 한 달 900여 통의 이단상담제보, 피해자들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한 달 1,000여 통 이상의 전화 또는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5] 그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라고 밝혔다. 이중에서 신천지는 현재 한국교회와 사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집단이다. 1984년에 출현한 신천지가 그 동안 한국교회와 사회에 미친 피해는 미미하였으나, 최근 들어 엄청난 세력확장을 이루며 교회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기성교인들은 신천지에 쉽게 미혹되었다. 그렇게 미혹된 성도들은 신천지의 추수꾼이 되어 교회

---

[4] 탁지일, “이단에 대한 바른 이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교육교회* 399 (March, 2011): 41.

[5] 탁지원, “한국교회의 이단의 실태 및 대처방안,” *교육교회* 290 (December, 2001): 1.

의 분열과 파괴를 조장하는 일꾼이 된다. 무엇보다 신천지의 심각성은 이미 매스컴으로도 회자된 바와 같이, 일탈적이며 반사회적 성향의 문제를 낳고 있다. 많은 주부들이 신천지에 빠져 가출과 이혼이 속출하고, 청년들은 학업과 직업을 포기하고 섭외(전도) 활동에 전념하는 사태로 인해 가정이 분열되고 파괴되고 있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져 지난 2007년 엠비씨(MBC) 'PD수첩'에서 신천지를 폭로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신천지의 심각성과 실체를 폭로하는 씨비에스(CBS) 다큐멘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6부작이 제작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신천지에 대한 세력확장은 줄어들지 않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뒤늦게 신천지에 대응하기 위해 세미나와 연구활동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천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학위논문은 총 17편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석사논문이고 박사논문은 3편으로 조사되었다. 박사논문은 2010년 10월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강신유의 "신천지교도의 이단경험과 탈퇴과정에 관한 연구"[6], 2011년 6월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김종한의 "이단교주의 '인간보혜사'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천지를 중심으로"[7], 2013년 12월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김낙경의 "신천지 이단을 대처하는 요한계시록 설교의 방향성" 등이 있다.[8] 먼저 2010년 10월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강신유의 "신천지교도의 이단경험과 탈퇴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은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의 경험

---

[6] 강신유, "신천지 교도의 이단경험과 탈퇴과정에 관한 연구" (PhD diss.,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0), 150-168.

[7] 김종한, "이단교주의 '인간보혜사'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천지를 중심으로" (PhD diss.,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1), 84-86.

[8] 김낙경, "신천지 이단을 대처하는 요한계시록 설교의 방향성" (PhD diss.,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3), 178-181.

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신천지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교회의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대처방안에 대해 연구한 내용이다. 그러나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성도들의 심리적 분석이 부족하고, 신천지로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기성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부족하다. 더불어 신천지에서 탈퇴한 성도들이 기성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 내 목회적 돌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 2011년 6월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김종한의 "이단교주의 '인간보혜사'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천지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인간이 '보혜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국에 자생하는 이단교주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신천지교리의 문제점들을 밝혔다. 하지만 신천지의 교리에 대한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에만 국한되었고, 신천지의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비판과 목회현장의 대응책이 부족하다. 2013년 12월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김낙경은 "신천지 이단을 대처하는 요한계시록 설교의 방향성"에서, 신천지의 실상과 허구성을 그들의 종말에 대한 주장을 중심으로 폭로한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에 대한 설교적인 적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한국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에 관한 설교의 비판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과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신천지 관련 국내 학술 자료로는 현재까지 27개로 조사되었다. 크게 4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천지의 이단성 연구, 성서해석 비판, 교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대응전략 등이다. 이단성 연구에 관한 자료로는, 2009년 새가정사에 등재된 탁지일의 "[이단 바로알기] 신천지예수교증

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9], 2011년 교육교회에 탁지일의 “교육으로 만나는 목회: 이단에 대한 바른 이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10], 2014년 성결교회와 신학에 안희환의 “최근 한국교회 이단연구: 인터넷에서 신천지의 기독교 비방활동”이 있다.[11] 이 자료들은 신천지의 이단성과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상학적인 문제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천지를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음이 아쉽다.

성서해석의 비판적 연구로는 2012년 설교한국에 정창균의 “신천지 이단의 성경해석과 설교적 대응”[12], 2014년 개혁논총에 이희성의 “신천지 구약해석의 실상과 허상”[13], 같은 해 활천에 박문수의 “신천지의 왜곡된 성경해석과 교리교육의 필요” 등이 있다.[14] 이 연구 자료들은 신천지의 왜곡된 성경해석의 실상과 문제점들에 대해 깊은 이해를 준다. 이를 통해 기성교회의 심도있는 성경해석과 교리교육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켜주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기성교회에서 간과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성서의 난제나, 종말과 재림에 대한 기성교회의 보편적 이해와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리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는 2010년 신학과 문화에 허호익의 “신천지의 교리와 교회침투 전략”[15], 2014년 조직신학연구에 박태수의 “복음방 교육에 나타난 신천지교리에 대한 비판

---

[9] 탁지일, “[이단 바로 알기]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 *새가정사* 56 (November, 2009): 92-95.

[10] 탁지일, “교육으로 만나는 목회: 이단에 대한 바른 이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교육교회* 397 (May, 2011): 40-45.

[11] 안희환, “최근 한국교회 이단연구: 인터넷에서 신천지의 기독교 비방활동,” *성결교회와 신학* 31 (June, 2014): 146-58.

[12] 정창균, “신천지 이단의 성경해석과 설교적 대응,” *설교한국* 4, no. 1 (May, 2012): 27-76.

[13] 이희성, “신천지 구약 해석의 실상과 허상,” *개혁논총* 30 (June, 2014): 93-126.

[14] 박문수, “신천지의 왜곡된 성경해석과 교리교육의 필요,” *활천* 730 (September, 2014): 26-31.

[15] 허호익, “신천지의 교리와 교회 침투 전략,” *신학과 문화* 19 (May, 2010): 125-53.

적 고찰" 등이 있다.[16] 이 연구자료들은 신천지의 교리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신천지의 이단적 교리의 기원이나 생성과정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결여되어 있다.

대응전략 연구로는 2004년 활천에 구수현의 "파수꾼의 외침; 신천지교회, 기성교인 미혹이 극심하다 - 선교회, 선교사 사칭하며 접근하는 신천지의 포교전략"[17], 2007년 활천 특집자료로 신천지를 경계하고 대응하는 연구자료 진용식의 "신천지를 경계하라; 신천지로 인한 피해와 그 회복"[18], 박문수의 "신천지를 경계하라; 신천지 교리의 허구성"[19], 활천 편집부의 "신천지를 경계하라; 교회파괴 비밀프로젝트: 신천지의 산 옮기기 작전"[20], 김정수의 "신천지를 경계하라; 신천지 그들은 누구인가"[21], 임병우의 "신천지를 경계하라; 인터뷰 : 신천지, 예방이 최선입니다."등이 있다.[22]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활천 특집자료로 박문수의, 2011년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천국혼인잔치 때 준비해야 할 혼인 예복은 무엇인가?"[23], "신천지는 이런 질문을 접근한다; 666이 성경적으로 정확히 무엇입니까"[24],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예수님이 재림하

---

[16] 박태수, "복음방 교육에 나타난 신천지 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직신학연구* 21 (November, 2014): 169-296.

[17] 구수현, "파수꾼의 외침; 신천지교회, 기성교인 미혹이 극심하다-선교회, 선교사 사칭하며 접근하는 신천지의 포교전략," *활천* 611 (April, 2004): 24-25.

[18] 진용식, "신천지를 경계하라; 신천지로 인한 피해와 그 회복," *활천* 649 (December, 2007): 28-33.

[19] 박문수, "신천지를 경계하라; 신천지 교리의 허구성," *활천* 649 (December, 2007): 22-27.

[20] 활천사 편집부, "신천지를 경계하라; 교회 파괴 비밀 프로젝트: 신천지의 산 옮기기 작전," *활천* 649 (December, 2007): 34-42.

[21] 김정수, "신천지를 경계하라; 신천지 그들은 누구인가," *활천* 649 (December, 2007): 16-21.

[22] 임병우, "신천지를 경계하라; 인터뷰: 신천지, 예방이 최선입니다," *활천* 649 (December, 2007): 14-15.

[23] 박문수,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천국 혼인잔치 때 준비해야 할 혼인예복은 무엇인가?," *활천* 695 (October, 2011): 58-59.

[24] 박문수, "신천지는 이런 질문을 접근한다; 666이 성경적으로 정확히 무엇입니까," *활천* 694 (September, 2011): 60-61.

실 때 타고 오시는 구름은 무엇일까"[25],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천국이 "씨로 된 나무와 같다"라고 한 것을 아십니까"[26], 2012년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종말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짐승은 무엇입니까"[27],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오른 눈과 오른 팔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고 찍어 버리라는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28],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29],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종말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짐승은 무엇입니까"[30],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신천지 접근 질문을 마치며(최종호)"등이 있다.[31] 2013년 교육교회에 탁지일의 "마지막(종말)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실적 교회, 종말론적 이단을 만나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를 중심으로"가 있다.[32] 이 연구자료들은 신천지의 미혹의 다양한 방법과 교회침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다양한 질문접근법들에 관한 자료들은 기성교회에게 미리 자문하게 함으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신천지를 악한집단이라는 설정과 경계적 태도만으로는 현재 기성교회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하는 비판적 시각을 해

---

[25] 박문수,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타고 오시는 구름은 무엇일까," *활천* 691 (June, 2011): 62-63.

[26] 박문수,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천국이 "씨로 된 나무와 같다"라고 한 것을 아십니까," *활천* 690 (May, 2011): 62-63.

[27] 박문수,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종말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짐승은 무엇입니까," *활천* 704 (July, 2012): 52-53.

[28] 박문수,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오른 눈과 오른 팔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고 찍어버리라는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활천* 706 (September, 2012): 50-51.

[29] 박문수,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활천* 699 (February, 2012): 58-59.

[30] 박문수,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종말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짐승은 무엇입니까," 52-53.

[31] 박문수,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신천지 접근질문을 마치며(최종호)," *활천* 710 (January, 2013): 56-57.

[32] 탁지일, "마지막(종말)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실적 교회, 종말론적 이단을 만나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를 중심으로," *교육교회* 429 (December, 2013): 22-26.

제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신천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신천지에 관한 이단성과 윤리성, 탈퇴 과정과 이단 상담, 신학적 비판, 이단 발흥 연구, 종교 심리학적 고찰과 정체와 대응 방안, 이단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신천지를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신천지를 악한집단이라는 부정적 연구에만 집중해 있다. 이렇게 악한집단이라는 이분법적인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신천지를 통해 기성교회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개선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면 신천지는 끊임없이 다양하고 변화된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기성교인들에게 접근하게 되겠지만 쇄신하지 않는 기성교회는 계속적으로 성도를 빼앗기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신천지도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기성교인들에게 접근한다. 또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들만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접근보다 기성교회가 간과한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천지로부터 회심한 성도들과 그들이 신천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요소는 무엇인가? 신천지로 돌아서게 만든 기성교회의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신천지로부터 회심한 성도들, 교회를 떠났다 돌아온 양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 내 목회적 돌봄은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따라서 나는 이와 관련하여 신천지로부터 회심한 성도에 대한 이해와 잃었던 양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Chapter II
이론적 배경 (Theoratical Background)

현재 한국 교회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단 신천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단에 대한 이해와 이단의 정의 및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단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A. 이단에 대한 이해

오늘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발흥하여 교인들을 미혹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단 및 사이비단체들은 교회의 문제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다. 이들에게 미혹된 후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와 자녀간에 갈등이 야기되며, 선량한 시민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등 이단 사이비들의 문제는 더 이상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시급히 대응하여 척결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33]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교회 교인들이 이단들의 정체를 잘 모르거나 이들의 미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데 있다.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다양한 문화활동, 사회 봉사활동, 교육활동, 또는 스포츠 활동 등을 한다. 최근에는 많은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들의 지명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34]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거나 성경공부를 가장하여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대규모 군중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기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 그 재정으로 대학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로 기성교인들을 유혹하여 자신들

---

[3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우리 주변의 이단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13.
[34] Ibid., 15.

의 추종자로 만드는 데 있다. 이들은 기성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소외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공부를 하자며 유혹한다. 그리고 점점 더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한다. 이렇게 이단에게 넘어가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현상으로 이들에게 세뇌되어 있고 빠져 나오려는 자들에게 그들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단절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1. 이단의 정의와 판정 기준

1) 이단의 정의

'이단'(Heresy)이란 말은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하스레이시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멸망케 하는 의견', '거짓된 가르침'을 의미한다. 신약성경에는 또한 이 말에서 파생된 '분리', '당파', '불화', '논쟁' 등을 의미하는 '하이레오미'라는 말도 나온다. 그리고 '분리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의미하는 '하이레티코스'란 단어도 신약성경에 나온다. 또한 신약성경에는 '무서운 이리',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등의 단어도 등장한다.[35]

이렇게 볼 때 '이단'이란, 정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교회가 용인할 수 없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무리를 지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나 종파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2) 이단의 판정 기준

기독교에서 이단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독교의 정통 가르침과 상반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종파들을 일컫는다. 그러나 '정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 확실한 진리며 오류가 없는가?'라

---

[35] Ibid., 13.

는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판단이 오류를 범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단들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한다.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은 옳지 않으며 자신들의 가르침이 정통이요 진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가르침이 정통이며 진리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단을 정의할 때는 성경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삼을 때 한 개인의 판단이나 신학적인 견해가 이단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공적인 교회의 대표기관인 노회나 총회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공적으로 규정될 때 이단으로 정죄된다.[36] 기독교의 정통 가르침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이단을 규명할 때는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밝혀야 한다. 편견이나 선입관 등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교권적인 정치권력의 횡포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

2. 이단의 발생 원인

이단은 왜 발생하는가? 노길명은 “사회구조적인 결함과 기성종교의 기능적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한다.[37] 즉 이단의 발생 원인은 사회적인 원인과 교회 내의 원인이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단 발생의 복합적인 원인은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인 모르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발생 배경을 연구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들이 발생한 19세기의 미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의 시기였다. 19세기 초에 미국은 경제불황을 맞았다. 은행이 도산했고, 사회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사회적인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때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발생하였다.[38]

---

[36] 총회이단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김인환, and 심창섭, *기독교 정통과 이단, 무엇이 다른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2), 85.

[37] 노길명, *한국의 신흥 종교* (서울: 가톨릭신문사, 1992), 25.

[38] 총회이단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김인환, and 심창섭, 88.

이런 현상은 한국의 신흥 종교 발생 배경과도 유사하다. 전도관, 통일교 등 무수한 유사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일어난 당시 한국 교회의 상황이야말로 이단이 발생할 수 있는 적합한 상황이었다. 1882년 개신교가 시작된 이래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사회적인 불안정과 경제적인 고통이 지속된 역사였다.[39] 36년간의 일제의 압제 아래 고통 당한 민족사, 해방을 맞이했으나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당한 6.25 전쟁의 비극, 남한만의 자유 민주주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부정과 부패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 이를 틈타 일어난 쿠데타와 군사 독재 하에서의 혼란한 정세, 경제 개발 제일주의 정책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대혼란, 지속적으로 불안을 가져온 북한의 도발 위험, 대학생들의 데모와 노동자들의 시위, 경제 성장주의가 가져온 사회적 가치의 전도, 가정 파괴, 도덕성의 저하 등 이 모든 변화가 한 세기 동안에 이루어졌다.[40] 이 시기에는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개신교 역사상 가장 많은 교파를 양산할 정도로 분파 운동이 발생하였고, 물량주의에 물들었으며, 교권주의와 교단 정치가 판을 치는, 일반정치 현장을 방불케 하는 교단 총회들이 득실거리게 되었다. 축복 신앙이 민간 신앙과 접목하면서 경건하고 건실하고 인격적인 성경 중심의 신앙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이비 무속 신앙이 기독교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흥 신앙이 되어 유행병처럼 번져갔다. 무분별한 주관적 성령 운동이 주도하는 은사 중심의 신앙이 열기를 가하면서 조용한 인격적인 신앙이 맥을 못 추게 된 것이다.[41] 이런 분위기에 휘말려 너도나도 성령 체험과 열정적 신앙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면서 극단적인 계시론과 신비적인 체험을 기준으로 정통 교회의 가르침을 위반하여 갓길을 걸어간 이단

---

[39] Ibid., 89.

[40] Ibid.

[41] 노길명, 26-27.

들이 대거 나타났다.[42] 이렇듯 사회적인 대혼란과 교회의 비정상적인 기능의 합작품으로 이단이 라는 병리현상이 교계에 나타난 것이다. 결국 신흥 종교와 이단은 불건전한 사회와 기존 종교의 결함이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다.

3. 이단의 특성

질병이 생기면 어떤 병세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단들은 나름의 독특한 색깔들을 나타낸다. 이단은 말씀 중심의 정통 교회와는 달리 두드러진 특성들이 있다.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단종파의 발원은 교회다

교회사를 통해 보면 이단들은 교회 밖이 아닌 교회 내에서 나타난다. 이단의 창시자나 교주들은 기존교회에 소속된 신자로서 성직자들이거나 특별한 계시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모르몬교(Mormon)의 창설자인 조세프 스미스 2세(Joseph Smith, Jr.)는 열성적인 감리교도였다. 안식교의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는 침례교회 신자였고, 크리스천 사이언스(Christian Science)의 메리 베이커 에디(Mary Baker Eddy)는 기독교 가정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교인이었다.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의 창설자인 찰스 러셀(Charles Tase Russel)은 회중교인이었다. 한국의 박태선, 문선명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장로나 집사직을 맡았던 자들이었으며, 신천지의 이만희도 세례받은 성도였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이단들은 교회에서 자생한 특징이 있다. 이들은 기존 교회에 불만을 품고 이탈하여 교회를 비난하며 사람들을 현혹시켰다.[43]

---

[42] Ibid.

[43] 총회이단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김인환, and 심창섭, 91.

2) 이단들은 정체성을 위장하며 기존 교회 신자들을 포교대상으로 삼는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교회 내부에 침투한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기존교회의 신앙과 차별화하면서 기존교회 교인을 포교대상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며 교인들에게 접근한다. 즉 자신이 믿는 것을 변장한 채 교회에 침투해 온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만 정통 기독교가 믿는 예수의 본체를 믿지 않는다.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위장한 채 왜곡되게 해석한다. 이단들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믿는 것이 상반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44] 사도시대의 이단들에게 있어서 이중적인 위장은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유1:4). 또한 공개적으로 하는 강연이나 출판물에는 결코 반사회적이거나 교주의 신격화 같은 물의를 일으킬 만한 자료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교육할 때에는 그들만의 자료를 갖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45]

3) 이단들은 신비와 체험 신앙을 강조한다.

이단들은 개인의 신비적 혹은 특별한 체험을 근거로 주관적인 확신에 찬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계시 체험을 일반화시켜 강조한다.[46] 체험이 없는 자들과 차별화하고 자신의 신앙이 우월함을 내세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체험한 무분별한 신비적인 경험을 신적 계시와 동일시하여 교인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도들도 이러한 주관적인 개인의 체험을 절대화시켜 절대적인 신적 계시나 그것의 매체로 맹신하는 데 있다.[47]

---

[44] 김영무 and 김구철, *이단과 사이비* (서울: 아가페문화사, 2012), 28.

[4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우리 주변의 이단들*, 19.

[46] 김영무 and 김구철, 28.

[47] 총회이단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김인환, and 심창섭, 90.

4) 이단들은 잘못된 성경해석과 거짓 예언을 일삼는다.

이단들의 성경해석은 지나치게 자구에 얽매인다거나, 교주들 자신만이 직통 계시를 받아 바르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주장한다.[48] 또한 거짓 예언을 일삼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짓 예언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내세우며, 그 예언이 하나님의 영감된 절대 진리라고 인식하고 있다.[49]

5) 이단들은 교주를 신격화 한다.

이단집단은 일반적으로 교주를 신격화 한다.[50] 정통 기독교가 신 중심주의라면 이단들은 교주를 신격화하는 인간 중심주의가 특징이다.[51] 교주들이 카리스마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것이다. 교주는 신격화되어 자신만이 구원을 준다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특권적 위치를 강조한다.[52] 맥도웰(McDowell, Josh)과 스튜어트(Stewart, Don)는 이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들 지도자들은 오직 자신만이 신령한 체험이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자처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종파의 교리나 행동양식들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속한 이단종파의 전 영역에 걸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53] 그리고 결국에는 교주 자신을 메시아로 둔갑시키는 경우에 도달하게 된다. 즉 '재림 예수', '최후의 제사장', '하나님의 대사', '말세의 종'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메시아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다.[54] 그러면서 교단의 창시자를 이 세상의 악과 불의를 제거하고 이상 세계를 구현할 메시아로

---

[4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우리 주변의 이단들,* 18.

[49] 총회이단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김인환, and 심창섭, 90.

[5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우리 주변의 이단들,* 18.

[51] 노길명, 134-38.

[5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우리 주변의 이단들,* 18.

[53] Josh McDowell and Don Stewart, *Understanding the Cult 이단종파*, trans. 이호열 (서울: 기독지혜사, 2000), 29.

[54] 김영무 and 김구철, 28.

여긴다.[55] 그리고 교주나 집단에 대한 지나친 충성과 헌신을 강요한다. 이들 이단에 빠져 집을 나가 가출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56]

6) 그 밖의 이단의 특징들

이단들은 격리된 형식의 공동 집단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고, 종말사상 신앙을 강조한다.[57] 또한 이단들은 말세사상과 더불어 지상천국신앙을 갖고 있다.[58] 그리고 이단들은 정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진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59] 이단은 정통기독교는 참 진리에서 이탈하여 변질된 종교라고 비난하며, 지나치게 파괴적으로 비판한다. 이런 비판은 대개 신도들을 자신들의 추종자로 만들고 결집시키기 위해서이다.[60] 또한 이단들은 대개 자신들의 주장을 절대화 하기 위해 성경 외에 자신들만의 경전을 갖고 있다.[61] 그래서 그들의 경전이 최종적인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어 있다.[62] 그리고 이단들은 물질을 강조하고 착취하며, 물질로 교단의 교세를 확장한다. 교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권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교인들의 맹목적인 기부를 통해 충당하는데, 심한 경우는 교인들이 전 재산을 헌납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으로 착취하여 자신들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63] 많은 재산이 축적되어 결국에는 경제적인 힘으로 교단의 교세를 확장시키지만, 반면에 신도들은 경제파탄을 가져와 가정

---

[55] 총회이단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김인환, and 심창섭, 97.

[5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우리 주변의 이단들,* 18.

[57] Ibid., 28.

[58] 총회이단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김인환, and 심창섭, 94.

[59] 김영무 and 김구철, 28.

[6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우리 주변의 이단들*, 18.

[61] 김영무 and 김구철, 28.

[62] 총회이단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김인환, and 심창섭, 95.

[63] 김영무 and 김구철, 28.

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다.[64] 마지막으로 이단들은 비윤리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행하기도 한다. 이단들의 특징은 가정을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하며, 나아가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거짓된 모습을 교묘하게 감춘다.[65]

이처럼 이단은 교리적으로 뿐 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정통 기독교를 위협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기독교의 이름을 표방하기 때문에 정통 교회에 더 큰 해를 입히는 자들이다. 이단 중에서도 특별히 신천지는 이러한 이단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 또한 심각하다. 그렇다면 신천지는 과연 어떠한 이단 단체인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자.

B. 신천지에 대한 이해

신천지는 이만희가 창시자이다. 신천지는 1980년 초에 예수의 시대가 끝나고 1984년부터 말세 계시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믿는다. 이어서 재림 예수의 영이 교주 이만희의 몸에 강림하여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 되었다고 믿는다. 또한 6천년 간 봉인된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실상을 이만희를 통해 천사들이 보고 듣게 하였으며, 그를 새로운 세대의 시대 사명자요, 세상의 빛이 되는 한 목자, 그리고 말씀이 없는 거짓 목자와 부패한 한국교회를 심판하는 이긴자로서 선택하여 실상계시를 전파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14만 4천 명의 신천지 교적부가 채워질 때 14만 4천의 이미 순교하신 영혼들이 성령이 되어 내려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육체인 신천지 신자에게 임한다고 주장하고, 그들이 변화되어 지상에서 육체로 영생불사 한다고 주장하며, 지상 천년왕국이 실현되는 마지막 때의 시온산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이단이

[64] 총회이단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김인환, and 심창섭, 94.

[6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우리 주변의 이단들,* 19.

다.[66] 신천지는 1990년대 초부터 산하교육기관인 '무료성경신학원'을 운영하면서 '성경의 모든 것을 3개월 만에 무료로 가르쳐준다'며 기성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67] 이들은 기성교회 교인들을 포섭하여 성경을 왜곡된 비유로 풀어 신천지만이 진리라는 우월의식을 심어준다. 그리고 기성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하며 기성교회를 이탈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적이다. 신천지는 현재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별로 12지파를 형성하고 있다. 2016년 1월에 신도수가 161,69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68] 하지만 기성교회 내에서 '추수꾼'으로 활동하는 신도들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69]

1. 신천지의 기원과 발전

1) 이만희의 종교체험과 전도관 입교

이만희는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군 풍각면 현리 702번지에서 이재문씨와 고상금씨 사이에서 태어났다.[70] 이만희는 17세 때 서울로 상경하여 성동구 금호동의 형 집에 머물면서 건축하는 일에 종사하던 중 1948년 집 앞에 사는 선교사에게 이끌려 창경궁 앞에 위치한 한 천막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71] 그 후 고향으로 내려와서 생활하던 중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박군의 심정(요한복음)과 학생문장독본을 탐독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일요일에는 높은 산으로 가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도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도 중 큰 별(천사)이 내 머리 위에 임하

---

[66]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이단사이비를 경계하라*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2015), 186.

[67] 탁지원,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 (서울: 국종출판사, 2008), 11.

[68] 탁지일, *교회와 이단* (서울: 두란노서원, 2016), 78.

[69] 탁지원,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 12.

[70]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189.

[7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합 이단, 사이비 연구보고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111.

였고 그 별은 나를 북으로 인도하는 것 같았다. 이 일은 삼일 동안 계속 되었다.[72]

이 사건 이후 이만희는 자신과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계속되어 자살을 하고자 산을 향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다. 그 환상 중에 건장한 사내가 나타나 "오늘부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고 외쳐서 자살을 포기하고 하산을 하였다.[73] 그 후 1957년에 몇 가지 신비체험을 한 그는 계시를 따라 박태선의 전도관(신앙촌)에 들어가 약 10년간 머물렀다. 그러다가 이만희는 1967년 당시 18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났던 장막성전의 유재열의 집회에 참석하게 된다.[74]

2) 장막성전 입교

전도관을 나온 이만희는 장막성전의 유재열의 집회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 크게 탄복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성경을 통독했다. 이때 "진리를 좇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그 결과 그는 장막성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75] 그는 1970년대 초부터 장막성전에서 7천사 중 한 명이던 백만봉이 설립한 재창조교회에서 12사도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1980년 3월 13일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백만봉의 주장과는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 다음날인 3월 14일에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규합해서 안양시 비산동에 신천지 교회를 세웠다.[76]

2. 신천지의 역사와 현황

신천지는 1980년 3월 14일, 당시 50세였던 이만희가 장막성전동료인 홍종효와 함께 경기

---

[72] 만국소성회, *영핵* (안양: 신천지, 1996), 75.
[7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우리 주변의 이단들,* 27.
[74]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189.
[75] Ibid., 189.
[7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우리 주변의 이단들*, 27.

도 안양에서 신천지교회를 시작한 것에서 출발한다.[77] 신천지교회를 창립한 이만희와 홍종효는 각자 자신들을 '두 증인' 혹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칭하면서 이만희는 설교를, 홍종효는 예배의 사회와 기도를 담당하며 교회를 이끌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1987년에 교리 문제(서로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주장함)로 다툰 후 결별하였다.[78] 이후 홍종효는 서울 종로구 홍제동에서 자신이 '진짜 예수'라며 증거장막성전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만희는 1990년 6월 12일에 서초구 방배 2동에 무료신학교육원을 세우고, 8월 6일에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신천지 집단을 이루었다.[79]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만희는 신천지교회라는 이름으로 안양시 비산동에 본부교회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벽산빌딩 5층에 본부를 두고 있다.[80]

신천지의 총회조직은 총회장(이만희), 총회총무, 7 교육장, 12 지파장, 24 장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을 12개 지파로 나누고 12 지파장(과천, 광주, 대전 등)을 책임자로 임명했다. 신도 12,000씩 총 144,000명을 채우게 되면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한다. 144,000명 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영계의 순교한 영혼 144,000명과 육계의 신천지 신도 144,000명이 신인합일을 이루게 된다.[81] 다시 말하면 영계의 순교한 영혼 144,000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육계에 신천지 신도 144,000명이 채워지면 순교한 영혼이 신천지 신도의 몸 속에 들어온 후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 기간 동안 구원받을 흰 무리를 모은다. 그 다음에 백 보좌 심판이 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144,000명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 정통 교회 교인들을 미혹한다.

---

[77]정윤석, 진용식, and 장운철, *신천지 포교전략과 이만희 신격화 교리* (서울: 한국교회 문화사, 2007), 41.

[78]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190.

[79] Ibid.

[80] 정윤석, 진용식, and 장운철, 41.

[8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우리 주변의 이단들*, 28.

3. 신천지의 조직과 활동

신천지는 1990년 6월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 2동에 신학교육원(현 사당 시온 기독교신학원)을 설립하고 8월 6일 1기 무료 성경 수강생을 모집한 데서 시작되었다. 현재 이들은 전국에 200여 개의 무료 성경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다양하다.[82] 시온기독교신학원, 기독신학원, 크리스천아카데미, 미션바이블아카데미, 비젼바이블아카데미, 국제선교센터, 총회신학연구원, 로고스신학원, 평신도성경교육원, 기독교신학원, 선교사총회신학, 성경신학원, 두란노선교회 등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83] 이들 학원의 교육 과정은 초등 2개월, 중등 2개월, 고등 2개월 모두 6개월 과정인데 이 과정을 다 수료하고 300문항의 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신천지 지역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 그 조직은 7 교육장, 12개 지파장, 24 장로 등을 붙여서 되어 있고, 직분에는 강사(교육), 교사(교육), 선교사, 전도사(교육), 원로장로, 장로, 권사, 집사, 문도가 있다.[84]

전국을 12사도의 이름대로 12구역으로 나누어 12지파라며 포교 활동을 한다. 신천지 교인 14만 4천명을 채우기 위해 정통교회에 추수꾼을 파송하고 산 옮기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이런 조직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역별 지파의 이름은 과천본부(요한지파), 광주(베드로지파), 대전(맛디아지파), 부산(야고보지파), 부산(여명-안드레지파), 대구(다대오지파), 강원(빌립지파), 화정(불광-도마지파), 성북(야고보지파), 부평(마태지파), 부천(인천-바돌로메지파) 등이다. 이 가운데 대구와 광주지파가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85]

---

[82] 서춘웅, *교회와 이단* (서울: 크리스챤서적, 2010), 770.

[83] 정윤석, 진용식, and 장운철, 44.

[84] 서춘웅, 770.

[85] 정윤석, 진용식, and 장운철, 45.

또 다른 조직으로는 무료신학원 외에 무료문화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악기와 외국어를 무료로 가르치는 방법으로 유혹해 먼저 성경을 배우는 조건으로 신천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하늘사다리, 기독교문화센터, CCM 교실 등이 있으며,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의 홈페이지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또 2002-2003년에는 문화 예술단과 신천지 자원봉사단을 발족했다.[86]

4. 신천지의 포교전략과 세뇌 방식들

신천지의 포교 대상은 정통 교회요 그 교인들이다. 그들에게 추수밭은 예수님이 씨 뿌려 놓으신 정통 교회인데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그 곳에서 추수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한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길거리로 돌아다니는 식의 효과 없는 전도를 했으나, 물고기는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잡아야 하는데 교회가 바로 물고기가 떼지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한다.[87] 따라서 그들은 교회 내부로 침투해 특정 소수에게 집중한다. 전도의 방법으로는 모략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신천지의 침투 교인을 외국에서 온 선교사나 정통 교회에서 양성된 전문 사역자 등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정통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전도대원은 대략 3인 1조다.

1) 포교전략

신천지의 포교전략은 굉장히 세밀하고 계획적이다. 포교를 위한 그들의 노력은 대단하다. 어떻게 포교할지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괜찮은 방법을 선정해 직접 포교해 보고 그 결과를 나눈다. '해보니까 이 방법이 좋다,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등 더 좋은 포교방법을 꾸준히 개발한다. 게다가 그 방법에 거짓말을 더한다. 성경의 '모략'이란 단어를 '거짓말'로 해석하는 신천지는 거짓말을 충분히 이용해도 좋다고 가르친다. 상황을 설정해 미리 연기를

---

[86] 정윤석, 진용식, and 장운철, 46.

[87] 서춘웅, 771.

해보는 치밀함도 보인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신천지는 구체적인 포교방법을 문서화해서 공유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성교회 교인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포교 방법을 교육하는 책도 200 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치밀하고 조직적이다.[88]

신천지는 수단과 방법,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을 미혹한다. 최근에는 성경세미나 등의 위장집회를 통한 전도방법, 기성교회에 '추수꾼'(정통교회에 위장 잠입한 신천지 성도)으로 잠입하는 전도방법, 기성교회 전체를 포섭하는 '산 옮기기'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를 신천지로 만든다는 의미) 전도방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서 포교하기도 한다.

a. 설문지

설문지 포교 시 여러 종류의 설문지로 접근, 포교대상이 자연스럽게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단체 이름을 사용하거나 혹은 공신력 있는 단체명을 도용하기도 한다. 이들의 목적은 설문 조사가 아니라 설문 조사 시 입수할 수 있는 연락처다.[89]

b. 장소를 가리지 않는 포교

신천지의 포교방법에는 '기성교회 교인 포교', '기도원, 교회, 집회전도방법', '병원전도방법', '신학생 전도방법', '대학생 전도방법', '열차, 버스, 전철, 비행기 내 전도방법', '노방전도', '좌판 전도방법', '일가, 친척, 친구 전도방법', '직장 전도방법'이 있다.

c. 산 옮기기

신천지 동영상 '기성교회 포교전략'에는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를 신천지로 옮긴다는 뜻

[88] 김정수, 18.

[89] Ibid., 20.

의 '산 옮기기' 포교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산 옮기기의 표적은 성도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이다.[90] ① 교회에 먼저 잠입해 있는 신천지 신도가 담임목사에게 사례비도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할 분이라고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나, ② 교회의 정보를 파악한 후 직접 교회로 찾아가 전도사 사역을 자처하며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이때 전도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통 교단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또 교육 전도사가 아닌 심방 전도사로 들어갈 것을 강조한다. "심방전도사는 가정마다 심방을 다니면서 성도를 파악할 수 있고, 신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전도사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③ 심방전도사로 들어간 후에는 신천지 신도들로 교회를 채워간다. 기존의 전도사들을 쫒아내고 신천지 신도들이 추천한 신천지 측 전도사를 세워 교회의 요직을 섭렵해 간다. ④ 마지막으로 담임목사와 불화를 일으킨 후 미리 친분 관계를 두텁게 해 놓은 장로를 설득해 담임목사를 쫒아낸다. 비어있는 담임목사 자리에는 정통교단의 신학을 공부했거나 목사안수를 받은 신천지 측 교역자가 들어 온다. 이때부터 교회는 껍데기는 정통교회이지만 알맹이는 신천지 신학원이 된다.

2) 세뇌 방식

신천지가 전도에 열심인 이유는 14만 4천의 수를 채우면 영계의 순교자의 영혼들과 육계의 신천지인들이 신인합일, 육체가 변화되어 영원히 산다는 영생관 때문이다.[91] 이것이 세뇌화되어 신천지 12지파가 경쟁적으로 *추수꾼* 양성과정 (제자훈련시스템: 기성교회에 침투해 교인을 빼오는 일꾼 양성과정)을 구축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신천지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전도하지 않고 기성교회를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근거로

---

[90] 정윤석, 진용식, and 장운철, 17.

[91] 한창덕, *한 권으로 끝내는 신천지 비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29.

한다. 그들은 추수 때는 예수님이 씨를 뿌려놓은 추수밭, 곧 기성교회에 가서 알곡을 모아 곳간 인 신천지교회로 인도할 때인데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핵심 교리로 가르친다.[92]

기성교인들이 신천지인이 되는 순차적인 과정은 ① 섭외, ② 복음방 교육, ③ 신학원 교육, ④ 수료자 교육, ⑤ 추수꾼 양육, ⑥ 사명자 양육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복음방 정교사 교육과정인 '추수꾼 양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신천지총회교육부에서 신천지 신도들을 전도기계로 세뇌시키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양육과정이다.[93] '복음방교사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기수별로 약 40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섭외방법 훈련, 유도멘트 훈련, 스피치 훈련 등이다. 이것을 집중, 반복하며 시험결과와 전도실적에 따라 복음방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5. 신천지를 바라보는 시선들

1) 공적인 영역에서 바라본 신천지

2008년 6월 12일에 대전 MBC에서는 한국교회 최대 이단 세력으로 급부상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의 문제점과 피해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대전 MBC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하면서 프로그램 첫 회 방송으로 신천지 문제를 선정할 정도로 신천지의 문제가 단순히 기독교 내의 분파싸움이 아닌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이단 단체임과 그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힘썼다. 이날 '시사 플러스'는 '누구를 위한 신천지인가'라는 제목으로 신천지 피해 가족들의 증언과 가정불화 상황, 신천지만의 지능적 전략 '추수꾼'과 '산 옮기기'로 인한 한국 교회 피해 사례, 무리한 헌금 강요 등 신천지 폐해상을

[92] Ibid.
[93] Ibid.

다뤘다. '시사 플러스'는 먼저 '신천지 교회가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혼요구와 가정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신천지 교회가 지목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로 인해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은 이혼 위기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사 플러스'는 신천지가 1984년에 출범한 신흥 종교로 기성교단에 위협적이리만큼 급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3년부터 급성장해 5만 명의 신도에 이른 비결을 '추수꾼' 활동과 '산 옮기기'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전략으로 대전에 있는 한 교회는 교회가 반 토막으로 나눠졌다는 얘기도 했다. 또한 과도하게 헌금을 강요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사플러스'는 이 밖에도 신천지의 특이한 전도방법에 대해서도 다뤘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 전도하는데 전도가 가장 필요할지도 모를 약자를 전도 기피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고 밝혔다.[94] 이렇듯 공적영역에서 바라본 신천지는 현재 한국 개신교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적 단체로 보고 있다.

2) 사적인 영역에서 바라본 신천지

2014년 2월 23일 합동 총회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이단이면서, 목회자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이단 단체가 신천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단의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이단대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단으로 교회가 피해 본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32개 교회 중 164개 교회(25.94%)가 '그렇다'고 답했다. 4개 교회 중 1개 교회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피해 사례로는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난 것'이란 답변이 나왔다 (교인이 미혹됐다 156교회, 80.82%). 이 밖에도 교회 혼란과

[94] 이인창, "대전 MBC '누구를 위한 신천지인가?" *뉴스파워*, June 14, 2008, http://www.tjmbc.co.kr/.

교회 분열의 피해를 입었다고 각각 29 교회, 8 교회가 답했다.[95]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교회가 혼란과 분열을 거듭하도록 피해를 준 이단은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에 234개 교회가 신천지(34.56%)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구원파(37개 교회), 통일교(27개 교회), 하나님의 교회(안증회 25개 교회), 여호와의 증인(21개 교회)이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가장 위험한 이단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58.40%(438개 교회)의 교회가 '신천지다'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안증회(122개 교회, 16.2%), 여호와의 증인(81개 교회, 10.80%), 통일교(27개 교회, 3.6%), 안식교, JMS 등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교인들이 이단에 빠질 경우 교회뿐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설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됐다. 이단에 빠진 신도들의 가정이 결국 가출, 이혼 등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는 결과가 나왔다(가출 22.72%, 가정파탄 15.45%, 이혼7.27%). 결국 이단으로 말미암아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이단에 빠진 신도를 둔 가정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단 때문에 실제적 피해를 입지만 여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단 예방 교육에는 무관심하거나 둔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신천지의 폐해

1. 신천지가 가정에 끼친 폐해

신천지는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부부간의 갈등 조장하며, 더 나아가 형제 또는 친족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가정을 와해 또는 파괴한다. 2013년 4월 10일자 국민일보 '신천지

[95] 정윤석, "한국교회에 가장 큰 피해주는 이단, 신천지," *기독교포털뉴스*, February 13, 2014, http://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7.

실체를 말한다'에서는 '신천지에 빠진 후 돌변, 가정이 풍비박산'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9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구의 박모(51·여)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아들 김모(28)씨가 신천지에 빠진 뒤 수시로 가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이 4학기 등록금을 받아갔지만 대학원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교회 목사님을 개, 돼지라고 저주하고 상담을 권유하는 부모에게 욕을 퍼붓는 아들을 보면서 실신한 적도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요즘 너무 답답해 아파트 베란다에 서면 뛰어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서 "30년 넘게 출석한 교회에 이 사실이 알려져 새 신자는 물론 기존 성도들 간에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교역자들마저 우리 가족을 은근슬쩍 피하는 것 같아 무척 힘들다"고 고통스러워 했다.
>
> 인천에 사는 김모(51)씨는 5년 전 아내와 이혼했다. 대기업 간부였던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 수억원의 헌금을 갖다 바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년 넘게 자신을 철저하게 속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아내를 추궁했지만 끝까지 발뺌을 했다. 욕설과 몸싸움이 이어지자 아내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했다. 끈질긴 요구에 결국 그는 부부의 끈을 놓고 말았다.
>
> 지난해 10월 25일 자정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 해안 초소 경계근무에 투입됐던 A 상병. A 상병은 새벽 1시쯤 후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초소 밖으로 나가 자신의 K-2 소총으로 옆구리에 실탄을 발사해 자살을 기도했다. 사고 직후 A 상병은 곧바로 인근의 한 병원에 긴급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연이은 군 관련 사건사고로 국민들의 가슴을 또 한 번 쓸어 내리게 했던 이 사건은 병영 내 적폐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CBS 취재결과 이번 총기자살 시도 사건은 A 상병이 신천지에 심취한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97]

2. 신천지가 사회에 끼친 폐해

광주지역에서 이단 상담 소장을 맡고 있는 임웅기 소장의 논문 "한국 개신교계 신종교의 윤리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살펴보면, 신천지가 사회에 끼친 폐해로는 노동력착취와 저 급여 실태와 출산기피현상, 우수한 인재손실, 재정의 불투명성과 과도한 비용지출 등이 있다. 먼저 노

---

[96] 백상현, "신천지를 말한다(4) 반사회적인 집단: 신천지에 빠진 후 돌변,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국민일보*, April 10, 201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070668.

[97] 송주열, "사병 총기 자살 시도 알고 보니..신천지 빠진 엄마 때문," *CBS 노컷뉴스*, March 24, 2015, http://www.nocutnews.co.kr/news/4387556.

동력 착취와 저 급여 실태를 살펴보자면, 간부급인 교육장과 지파장의 급여가 100만원, 교육강사가 50만원, 전도사가 20만원, 보조전도사는 5만원이다.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농장이나 각종 다양한 일들을 주로 청년들이 맡고 일하고 있지만 급여는 고작 10만원 정도이다. 최저생활비도 되지 않는다. 또한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를 포함한 직원들은 한 푼의 급여도 못 받고 모든 경비를 본인이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신천지의 전반적인 환경 때문에 간부나 직원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98] 이로 인해 신천지는 국가적인 경쟁력을 상실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많은 대학생들이 신천지가 허상으로 만들어 놓은 구원의 숫자 144,00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 학교를 휴학하거나 학업을 포기하고, 일상생활의 모든 역량을 포교에 집중한다. 이처럼 유능한 대학생들이 구원의 허상에 빠져, 국가적으로 막대한 인재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다.[99]

지난 2007년 5월 8일에 방송된 MBC PD수첩 '신천지 수상한 비밀'에서는 90억이나 되는 건물의 명의가 이만희의 아들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폭로하였다.[100] 이것은 신천지의 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15일 뉴스파워에서는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신천지가 학원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기사화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 신현욱목사)는 1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학원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가 학원등록 없이 신학원을 설립, 운영해 학원법

---

[98] 임웅기, "한국 개신교계 신종교의 윤리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2008), 84-85.

[99] Ibid., 85.

[100] "신천지 수상한 비밀," PD수첩, MBC, accessed November 17, 2016,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36100305100000.

을 위반했으며,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과천본부 예배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101]

3. 신천지가 교회에 끼친 폐해

신천지가 교회에 끼친 폐해로는 추수꾼 파송으로 인한 교회와 성도 착취, 신천지 반대 집회 교회 기물파손 및 교역자 폭행,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불신 조장하여 교회 분열 및 와해를 시도 한다.

지난 2012년 예장통합측 강북권 최대 교회인 강북제일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축출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이단 전문가들은 통합측 강북제일교회에 신천지 세력이 개입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2년 10월 21일 이단 대처 사역자인 최삼경, 박형택 목사, 신현욱 전도사는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강북제일교회 핵심 신도가 신천지다.'라고 폭로 했다.[102] 세력의 확대, 당회파와의 연합-담임목사 퇴출-장로, 당회파 퇴출-신천지측 담임목사 청빙 순으로 신천지의 산 옮기기가 소형교회와 개척교회를 넘어 대형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례이다.

2015년 7월 11일(토) 강릉의 한 팬션 부근에서 강릉북지방 연곡교회의 윤석호목사가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에 빠진 자기교회 청년을 구출해 내려는 과정에서 신천지 측 2-30명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에 신천지는 오히려 아들을 구해내려던 연곡교회의 교인인 부모와 목사를 강제 개종의 목적으로 감금, 폭행을 일삼았다는 거짓을 주장하며 신천지에 빠진 아들로 하여금 부모와 목사의 처벌을 원하는 고

[101] 송주열, "신천지를 고발합니다.. '학원법위반' 고발장 접수," *CBS 노컷뉴스*, March 13, 2015, http://www.nocutnews.co.kr/news/4382354.

[102] 김덕연 et al., *이단신천지 대처법 A to Z* (경기도: 기독교포털뉴스, 2013), 270-78.

발을 하도록 사주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이 사건 이후, 1천 5백 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7월16일 춘천의 강원 경찰청 앞에서도 '강제개종, 감금 폭행을 일삼는 목사를 구속하라'는 제목으로 시위를 벌이며, 자신들을 일방적인 핍박을 당하는 선의의 종교집단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103]

다음으로 신천지 목포교회 소속인 장 모 신도는 인터넷에 '진용식 목사와 임웅기 전도사는 돈을 벌기 위해 개종교육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 개종 시킬 때마다 500만원 수입을 올리는 삯꾼 목사들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광주지검 목포지청 2011형제1400).[104]

또한 광주상담소장 임웅기 전도사는 베드로지파 길 모 신도로부터 '감금'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조사 결과 허위로 판명되어 사건 각하 결정이 내려졌는데(광주지검 2011형제7498), 반대로 2004년 8월경 신천지 베드로지파 소속 신학원강사 서 모 외 5명이 임웅기 소장을 납치 감금한 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판결문 2004고합351).[105]

D. 신천지의 주요 교리와 문제점

1. 신천지 주요교리와 배경

신천지 교리는 이단 사이비 교리들의 종합세트이자 결정판이다. 그것은 교주 이만희가 여러 이단 사이비 집단들을 전전했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이만희의 대부분의 교리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교리와 동일하다. 첫째로, 자신을 5,798세의 '새 하나님'이요, 성경의 98%가 잘못이

---

[103] 박윤경, "사이비 신천지 규탄대회 9 일 개최," *CBS 노컷뉴스*, August 7, 2015, http://www.nocutnews.co.kr/news/4455249.

[104] 김덕연 et al., 255.

[105] Ibid., 256.

며, 자신이 철장 권세를 받아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하던 천부교의 박태선 장로로부터 “동방교리, 시온사상, 감람나무, 두 증인, 철장 권세, 지상천년, 이긴 자, 영생불사” 등의 교리를 고스란히 옮겨왔다.[106]

둘째로, 환상과 방언을 통해 자신은 하늘의 두루마리(말씀)를 받아먹고 말세에 대한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장막성전의 ‘어린 종’ 유재열(당시17세)로부터는 “장막성전,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을 먹음, 말씀의 짝, 보혜사 성령, 7천사, 24장로, 동방교리, 철장 권세, 3년 반, 신천신지” 등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인 유재열이 재정 문제 등으로 교주의 자리를 떠나자 크게 실망했다. 그래서 그는 장막성전을 기성교회와 결탁한 배도의 무리로서 첫 장막성전이라 불렀고, 교주 유재열을 세례 요한에 비유하여 자신을 예비한 자로 격하시켰다.[107]

셋째로, 70년 초 장막성전의 7천사 중의 한 사람이었던 자칭 하나님 백만봉(영적 이름 솔로몬)이 세운 ‘새창조교회’에 머물다가, 시한부 종말 예언(1983년 3월 13일)의 실패와 여자문제가 발생하자 교주의 12사도로 있던 이만희는 독자적으로 안양에서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을 세웠다. 여러 번 교주들의 행태에 실망한 이만희는 결국 자신을 시대적 사명자, 두 증인, 보혜사 성령, 재림 예수, 이긴 자 등으로 고려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108]

넷째로, 이만희는 자신을 신격화 하는데 활용한 책 ‘신탄’(김건남, 김병희공저)을 통해 통일교 교리의 직간접 영향을 받았다. 그 책의 저자들은 통일교에서 이탈하여 잠시 진진화의 ‘생령교회’에 몸 담았던 사람들로서 “비유해석, 시대별 멸망과 사명자 세움, 두 증인, 예언의 실상, 영계와 육계 구분, 신인합일, 재림주가 인간의 육신으로 부활재림, 인간 보혜사, 그리고 영생불

[106] 박문수, “신천지를 경계하라: 신천지교리의 허구성,” 22.
[107] Ibid.
[108] Ibid.

사” 등의 사상을 전해주었다.[109]

2. 신천지의 핵심교리와 비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3-5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 중 하나로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 예언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 재림주, 보혜사 등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추종자들은 한결같이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교주가 참 목자, 재림주 등이라고 주장하고 정통교회는 타락한 교회이며 정통교회 목자는 거짓 목자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들이 정통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불신자를 전도의 대상으로 하기보다 정통교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110] 또 이들이 정통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는 단계적인 교육을 한다. 이는 교주의 신격화 교리를 맨 마지막 단계에 두고, 그것을 믿도록 유도하는 교리를 먼저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단체 중의 하나가 이만희를 보혜사, 재림주로 믿고 있는 소위 ‘무료성경신학원’이다.[111] 이만희의 교리의 핵심은 교주 이만희를 믿게 하는 것이다. 이만희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거부하는 정통교회와 목사를 향해 억지스러운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만희의 이러한 주장 중에 하나를 인용해본다:

> 세계 민족 중에서 성경을 통달하고 실상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은 약속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뿐이다. 하나님이 누구와 어디에 함께 하시는지 성도는 판단하고 따라야하며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 목자마다 거짓 목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며, 마귀의 교단들이다.[112]

이만희의 교리를 요약한다면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 재림주이며, 이만희가 세운 신천지증거장막성전이라는 단체에 와서 이만희의 교리를 믿어야만 구원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리

---

[109] Ibid., 23.

[110] 정윤석, 진용식, and 장운철, 59.

[111] Ibid., 60.

[112] 이만희, *성도와 천국* (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95), 111-12.

이면에는 교주의 신격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만희의 신격화 주장들을 살펴보자.

1) 직통계시교리

이단 교주들의 공통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는 직통 계시의 주장이다. 통일교의 문선명이 나 천부교의 박태선, 정명석, 박명호 등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113] 신천지의 이만희도 예외는 아니다. 자신도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쓴 '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이 세상에는 성경을 풀이한 수많은 책들과 그 책의 저명한 저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필자가 증거한 이 책과는 족히 비교될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권위로 연구하여 해설한 것보다 주님의 성령과 천사들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지시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과 실상을 동시에 증거한 것이기 때문이다.[114]

이러한 이만희의 직통 계시 주장에 대해 반박해보자면, 이만희는 자칭 재림예수 유재열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만희가 주장하는 주요 교리들은 대부분 유재열로부터 전수 받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만희는 자신의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직통계시라고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

2) 재림주교리

이만희의 재림론은 이만희 자신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는 것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이만희가 예수님의 육신이며, 결국 이만희가 '재림주'라는 것이 이만희의 재림교리이다. 이만희의 주장을 확인해보자:

---

[113] 정윤석, 진용식, and 장운철, 61.

[114] 이만희, *천국비밀 요한계시록 실상* (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93), 3.

>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사 예수님에게 임한 것 같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택한 한 사람에게 임하여 동서남북 사방에서 알곡(말씀 지킨 자)을 추수하여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신다.[115]

이만희의 주장은 예수님이 영으로 한 육체에게 임하는 것을 재림이라고 한다는 말이다. 좀 더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 11절의 예수님 승천 시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요, 영으로 오심을 알린 것이다. 모세에게 구름 타고 오신 하나님은 영이었고(출19:9), 초림 때 예수님께 구름 타고 오신 하나님도 영이었으며(마17:5), 재림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육이 아니요 영이신 것이다. [116]

이만희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으로 어떤 인간 육체에 임하시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육체 즉 재림주가 누구라는 말인가? 결국 이만희 자신이 재림주라는 것이다. 교주 이만희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재림하셨는데, 바로 자신에게 영으로 임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이 시대의 재림주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안상홍, 문선명, 정명석 등 국내파 다른 가짜 재림주들의 교리와 전혀 다를 바 없으며, 자신이 재림주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터무니 없는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3) 비유풀이

이만희는 성경의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것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푼 영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문자에 매여 육적으로 해석하여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리가 없다.[117]

이만희는 이처럼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자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만희처럼 비유풀이를 강조하여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야

---

[115] 이만희, *성도와 천국*, 77-78.

[116] 이만희, *계시* (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86), 43.

[117] 이만희, *성도와 천국*, 26.

한다는 주장은 모든 가짜 재림주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118] 이단들 중에도 교주를 신격화하는 집단들은 반드시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이들은 비유풀이를 주장하고 성경을 "영해"하려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주를 재림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교주를 재림주로 만들기가 불가능하다. 재림주는 하늘로부터 와야 하고, 구름을 타고 와야 하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이 울려야 한다. 그러나 가짜 재림주들이 자신들에게 이러한 성경의 예언들을 맞추려면 비유라는 형식을 빌어 제 맘대로 성경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짜 재림주들은 구름, 하늘, 천사장의 나팔 등의 성경구절들을 다 비유라는 식으로 풀어서 자기를 재림주로 맞추는 것이다.[119]

둘째, 가짜 재림주들이 비유풀이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성경을 자신이 만든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비유풀이 즉 영해를 하게 되면 성경내용을 얼마든지 자기의 주장에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영해를 하여 성경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맞추어 성경의 거룩한 본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120]

셋째, 이단 교주들의 비유풀이의 또 하나의 목적은 성경의 예언을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만희의 비유풀이도 그렇다. 이만희는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고 그 비유가 이뤄지는 것이 실상이라고 한다. 구약 성경의 실상이 초림 예수에게 이루어졌듯이 계시록의 예언은 이만희 자신과 자신이 세운 장막성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121]

---

[118] 정윤석, 진용식, and 장운철, 70.
[119] Ibid., 70-71.
[120] Ibid., 71-72.
[121] 이만희, *계시록의 실상* (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93), 1.

성경은 역사, 사건, 예언, 비유, 교훈 등의 방법으로 기록되었다. 비유로 기록된 것은 비유로 해석해야 하며, 예언은 예언으로 해석해야 하고, 사건이나 역사는 실제의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만희의 성경해석 방법은 사건이든지 역사든지 다 비유로 풀이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만희가 이토록 비유풀이에 집착하는 것은 다 비유로 풀어서 결국 이만희 자신을 믿게 만드는 교리를 주장하려는 것이다.

4) 교주 구원론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구원론을 보면 대부분 교주를 신격화하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식이다. 이만희의 구원론 역시 교주인 이만희를 만나서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 이만희의 이러한 구원교리를 확인해보자:

>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심과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한 목자(이만희)를 빛으로 택하시고 그와 함께하여 성경의 예언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과 구원의 일을 초림 때와 같이 하신다.[122]

초림 때는 예수님을 택하여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재림 때인 지금은 한 목자인 교주 이만희를 택하여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만희의 주장을 더 살펴보자:

> 누구든지 이 일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불을, 말씀을 깨달아 믿는 자는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123]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할 사람은 사도요한 격인 야곱(보혜사, 이스라엘) 곧 승리자를 만나야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124]

여기에서 사도 요한격, 야곱, 보혜사, 승리자, 목자 등은 다 교주 이만희를 지칭하는 호

---

[122] 이만희, *성도와 천국*, 95.

[123] 이만희, *성도와 천국*, 96.

[124] Ibid., 52.

칭이다. 결국 이만희를 만나서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비성경적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신천지의 이단성과 개신교 주요 교단의 결정사항

이만희와 신천지의 이단성에 따라 신천지 집단의 이단성에 대한 각 교단별 결정은 다음과 같다. 예장통합(1995) 결정내용: 이단(계시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예장합동(1995, 2007) 결정내용: 신학적 비판가치 없음, 이단(신학적 비판 가치 없음), 기성(1999) 결정내용: 이단(계시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예장합신(2003) 결정내용: 이단, 기감(2014) 결정내용: 이단, 예장고신(2005) 결정내용: 이단(직통 계시, 보혜사), 예장대신(2008) 결정내용: 이단(재확인 및 영입거부).[125]

[125] 허호익, *한국의 이단 기독교*, 296.

Chapter III
사례연구 (Case Study)

A. 연구방법론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천지로부터 회심한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방법으로, 신천지에 빠져서 실제로 신천지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직접 경험했거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천지에 매료 되었고, 신천지로부터 돌아서게 되었는지, 회심 후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면담'(Interview)을 사용한다. 면담의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콜라이지(Paul f. Colaizzi)의 분석절차를 적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1.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개념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 경험의 기술(descrip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 기술적 연구 방법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여 구조, 즉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26] 따라서 나는 최대한 모든 편견들을 버리고 연구참여자의 살아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경험에 대한 의미와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현상의 본질을 밝히려 한다.

2. 콜라이지의 분석절차

콜라이지의 분석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있는 진술들을 찾아내어 이를

[126] 신경림,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2004), 234.

기반으로 의미있는 주제들을 묶어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127]

1) 기술들을 읽기

2)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내기

3) 명확하게 밝힌 의미있는 주제들을 무리들로 묶기

4) 조사된 현상을 철저하게 기술하기

5) 각각의 응답자가 제시한 철저한 기술의 유효성 확인하기

B.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이단 신천지로부터 회심한 성도들을 이해하고 목회적 돌봄을 위한 것이다. 그러기에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신천지라는 이단을 경험을 한 후 회심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단으로부터의 회심자들을 인터뷰하며 연구한다는 것은 상당한 민감한 문제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이단 경험을 다시 들추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구자와 충분한 신뢰와 친분이 있거나 협조 가능성이 높은 연구 참여자들로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현재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신천지 교육을 받고 회심한 성도들로 한정을 하고 그 기준을 정했다. 연구자는 본 교회와 담임목사에게 속해있기에 담임목사에게 연구 주제와 목적을 설명 한 후 연구 승인절차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는 총 2명으로, 신천지에서 1년 동안 고등교육까지 받은 40대 중반의 여자 집사와 신천지 교육을 1개월 가량 받은 청년 등이다. 40대 중반의 여자 집사는(참가자A) 본 교회에서 20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신천지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추수꾼이 되기

---

[127],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2010), 107.

직전까지 갔었으나 남편이 심각성을 깨닫고 이단 상담을 요청하여 신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자와 함께 신천지에 빠졌던 다른 성도를 회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20대 중반의 청년(참가자B)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으나, 군 제대 후 어머니의 소개로 1개월 가량 신천지 교육을 받다가 본 연구자의 설득으로 신천지 성경공부를 중단하고 현재교회에 적응 중이다.

C. 연구의 제한성

이 연구는 D. Min Project로 연구를 일반화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현재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신천지로부터 회심한 성도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목회적으로 돌볼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단 신천지와 관련된 연구이기에 신천지를 경험한 성도들을 연구 참여자로 제한한다. 사실 교회에서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이들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이들을 면담한다는 것은 예민한 문제이기에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천지로부터 회심한 타 교인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면담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이단 상담자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교회마다 이단에 빠졌던 성도가 돌아와 현재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길 꺼려하고 이단에 빠졌던 성도가 자신의 신앙적 치부를 드러내며 연구 참여자로 자원하기란 힘든 실정이다. 이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신뢰 속에서 면담 질문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내면이 솔직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그 동안 신뢰를 쌓아온 본 교회의 신천지로부터 회심한 성도들을 연구 참여자로 제한하고, 이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목회적 돌봄과 목회적 대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다.

D. 연구의 윤리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여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한 뒤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들을 진행 한다. CST(Claremont School of Theology)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관한 규정’(Policy for Research with Participants proposed revision by IRB 3-20-14)에 따라, 연구를 시작하기 전, 모든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서면상으로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았다. 동의서는 법의 제한 안에서 비밀유지를 보장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강제적으로나 부당한 영향 없이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후에,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 동의서는 연구 참여자가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거나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모든 무책임한 언어들, 법적 책임이나 과실로부터 연구자, 지도교수, 학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듯한 언어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참여자들과 면담을 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자료의 익명처리를 알리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과 연구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으며, 연구 참여 도중 대답하기 싫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언제라도 연구 참여와 관련한 연구 참여자 본인의 의사를 수정하여 말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 명단과 연락처,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자만이 알고 있으며, 녹음테이프나 녹취 자료에 있는 참여자 이름을 논문에서는 직접 사용하지 않고 참여자 번호를 붙여서 참여자 개인 신분에 관한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논문의 모든 연구가 마무리 되고 통과가 된 후 녹취 자료와 메모사항들은 1년 정도 보관 후 모두 삭제 및 파기할 것이다.

E. 자료수집

1. 면담방식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인터뷰는 참여자를 직접 만나 진행하며, 참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것을 토대로 내용들을 정리했다. 특별히 이 연구는 신천지 경험 후 돌아온 신자들을 연구하는 것이기에 면담과정을 거치면서 이차적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기에 이 연구는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고, 다른 교인들에게 이 논문의 연구 참여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면담 시간과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존중하여 직장근무시간 이후 오후 시간과 주말에 교회 세미나실 등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교회 세미나실에서 면담이 진행될 경우 교인들의 왕래가 제일 적은 날짜와 시간대를 선정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한 후 면담약속 날짜를 확정하였다. 부득이하게 면담 약속 날짜가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서로 연락을 취하여 면담 약속 날짜를 변경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면담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면담에 응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어떤 불이익 없이 연구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주 1회 1시간씩 총 3번으로 한정하였다.[128] 필요에 따라 조금 유동적으로 변경되었다.

면담 하기 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재정적 위험을 포함한 예상되는 모든 위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알려진 혹은 예상되는 유익에 대해 설명한 후 면담

[128] 면담을 주 1회 1시간씩으로 한정 지은 것은, 면담 후 다음 면담을 위한 좀 더 심층적인 질문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해서이고, 3번의 횟수로 한정 지은 것은 면담이 상담으로 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을 시작하였다. 면담과정 혹은 그 후에 메모노트를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인 면, 연구자에게 떠오른 생각이나 질문을 즉각 기록하여 면담진행 혹은 민감한 분석 작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녹음된 면담 자료는 언어, 비언어적인 부분을 주의 깊게 듣고 면밀히 필사하였다. 필사한 자료는 반복적으로 읽고 정리하여 다음 면담을 준비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은 지속적인 비교와 질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와의 면담내용에서 나타나는 개념을 추출하였다.

2. 면담 질문

1)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첫 번째, 주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공부의 내용들은 무엇이었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공부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신천지로부터 회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며, 무엇이 신천지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까?
- 신천지로부터 회심한 후 교회로 돌아왔을 때 어떠한 경험들을 했습니까?
- 혹시나 회심 후 교회에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 받았던 일들이나 사건들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 회심 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현재 다니는 교회나 한국교회의 어떤 점들이 성도들을 신천지나 이단 단체에 빠지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심한 성도들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천지에 다른 성도들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대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다니는 교회나 한국교회의 개선 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본 연구의 면담에서 첫 번째 질문을 수정하여 사용했던 두 번째, 주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본인이 신천지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나요?)
- 교회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알게 되어 회유하려 할 때, 어떻게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단에 빠졌다가 회심하여 돌아온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일꾼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 신천지로부터 회심하여 돌아온 분들을 위해 교회에서 갖춰야 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신천지로부터 회심하여 돌아온 성도를 소외감을 주지 않기 위한 교회의 노력을 찾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신천지로부터 회심하여 돌아온 성도가 다른 이단이나, 신천지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을 가정에서 어떻게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단(신천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긍정적, 부정적인 면)

3. 자료 분석

1) 자료 분석 과정

본 연구에 있어서 자료분석의 과정은 콜라이지(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따랐다. 현상에 대한 체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초점이 있는 이 분석과정은 구체적으로 일곱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129]

a.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참여자의 기술을 여러 번 읽는다.

b. 연구현상과 직접 관련된 각각의 진술에서 연구주제와 관련이 있는 의미의 진술을 도출한다.

c. 의미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 진술하고 참여자의 비언어적 메시지도 기술한다.

d. 의미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 표현된 의미 단위에서 의미를 끌어낸다.

e. 둘 이상의 도출된 의미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고 주제들을 모아 주제 모음으로 묶으며 주제 모음들을 모아 범주로 구조화한다.

f.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명확하면서도 충분히 서술한다.

g. 참여자들로부터 기술된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129] 정진오, “성령의 음성 듣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PhD diss., 강남대학교일반대학원, 2013), 114.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면담을 녹음한 내용들을 전사한 후 여러번 반복하여 읽었으며,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핵심사항을 메모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범주화하여 분류하였다.

Chapter IV
연구의 결과 및 논의 (Result of the Study)

A. 개방코딩(Open Coding)

본 연구자는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면담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유사한 것은 모아 범주화 시켰다. 그 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분석을 하였으며, 11 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20 개의 하위 범주가 나왔다.

1. 신천지 성경공부를 시작한 이유(A-날 위한 관심, B-말씀에 대한 갈증)

신천지 성경공부를 시작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참가자 A는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 매력을 느꼈고, 비유에 관한 말씀이 재미있어서 신천지 성경공부를 지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가자 B는 군 제대를 앞두고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먼저 공부를 시작하고 계셨던 어머니의 소개로 신천지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신천지에 빠지게 된 이유(AB 공통-비유풀이)

신천지에 빠지게 된 이유를 물어봤을 때, 참가자 A는 비유풀이가 재미있어서였다고 한다. 너무나 쉽게 다가왔고, 다른 성경과 비교해가면서 보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참가자 B도 비유풀이가 재미있어서였다고 한다. 비유풀이가 선명하게 이해되었다고 한다.

3. 신천지로부터 돌아서게 된 계기(A-들킴과 솔직한 고백, B- 신천지 관련 동영상, 엄마의 회유)

신천지로부터 돌아서게 된 계기를 물어봤을 때, 참가자 A는 교회에서 팀을 이루어 자신이 신천지에 다닌다는 물증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부목사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을 계기로 신천지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참가자 B는 교회에서

팀을 이루어 회유가 들어가자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동영상을 보시고 결국, 진행중인 성경공부가 신천지 성경공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참가자 B는 그 동안 성경공부를 가르치던 분께 신천지라면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돌아서게 되었다고 했다.

4. 회심하여 돌아왔을 때 교회의 반응(AB공통-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반응해줌)

회심하여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물어봤을 때, 참가자 A, B 모두 전반적으로 예전과 다르지 않게 대해 주었다고 말했다. 물론 수근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개의치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회심자들에 대해 대놓고 눈총을 주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않았을 뿐이지, 회심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소외감을 느낀 것은 분명하다.

5.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이유(A-관심, 정, 말씀에 대한 궁금증, 끼리끼리 문화, B-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참가자 A는 교회의 끼리끼리 문화가 자신을 소외감이 들게 만들었고 신천지에 빠지게 된 계기라고 말하였다. 그 외에 말씀에 대한 궁금증,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관심, 정, 따뜻함이 신천지에 빠지게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참가자 B는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단에 빠지게 하는 요소인 것 같다고 말했다.

6. 이단에 빠진 사람 접근(회유) 방법(A-증거가 확실하다면 단호하게, B-이해와 공감, 물음에 친절한 답변)

이단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회유해야 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참가자 A는 신천지에 다닌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단호하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비해 참가자 B는 이해와 공감해주면서,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면 친절하게 잘 답변해줘야 회

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7. 회심한 성도 관리(A-지속적 관심, B-말씀으로 양육, 사명감 고취)

회심하여 돌아온 성도를 교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참가자 A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해주고, 확실하게 돌아섰다 여길 때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줘야 한다고 말하였다. 참가자 B는 말씀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육하여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8. 회심한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A-후속교육 프로그램, 간증 프로그램, B-가족과 함께 말씀교육, 회심자들을 위한 모임)

교회에서 회심한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가자 A는 이단 상담을 하는 안산 상록수교회처럼 교회 안에 후속교육 프로그램들과 간증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가자 B는 회심한 성도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말씀교육을 하는 프로그램과 회심한 성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9. 교회의(목회자, 성도) 노력(A-따뜻한 한마디, 포옹, B-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기, 기대, 기다림)

목회자나 성도가 회심 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물었다. 이에 참가자 A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포옹을 언급하였다. 참가자 B는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0. 이단 신천지 경험을 통해 느낀점(A-바른 예배 자세, B-부정적 영향, 목회자 불신, 교만)

이단 신천지 경험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 참가자 A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른 예배자세를

이야기하였다. 예배를 드릴 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였다. 참가자 B는 신천지의 영향 때문에 목사님들과 말씀에 대한 불신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남아 있다고 하였고,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하였다.

11. 신천지에 맞선 교회의 대책(A-이단교육, 강해설교, B-말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

신천지에 대응하기 위한 교회의 대책을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참가자 A 는 주일 오후보다 대예배 때 이단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주일 대 예배 때도 강해설교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B. 축코딩(Axial coding)

개방코딩으로 나온 범주들을 6개 하위범주에 맞게 자료를 재구성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과적 조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

인과적 조건으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에 대해 살펴본다면, 신천지 성경공부를 시작하거나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외로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향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과 말씀에 대한 갈증, 또한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천지의 비유풀이를 통한 성경공부의 매력과 구원에 대한 확신 등.

2. 현상: 어떤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거나 관련 집단에 관계하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

신천지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신천지의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세뇌교육 속에서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의식과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게 됨.

3.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

이단에 빠진 사람에 대한 접근이나 회유 방법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함. 잘 회심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돌봐야 함.

4. 중재적 조건: 특정 상황에서 취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 및 제한하는 것

회심한 성도들을 교회에서 잘 맞아주고 관리해야 하며, 회심한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각 교회에 맞게 잘 개발하고 정착할 수 있어야 함. 목회자들이 다양하고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회심한 성도들이 기존교회 성도들과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기존교회 성도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5. 작용/상호작용전략: 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참여자들의 의도적인 행위나 반응

회심한 성도를 위한 후속교육프로그램 진행, 이단대처프로그램에 전문가로 적극적인 양육 및 활용

6. 결과: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물

회심한 성도들을 교회가 잘 받아들이고 양육한다면 그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여 교회를 흔드는 이단에 대한 대처능력을 교회가 키울 수 있으며, 이단에 대한 교회의 방어력을 키울 수 있다.

C. 연구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천지로부터 회심한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돌볼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신천지로부터 회심한 성도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어낸 자료분석을 통해서 목회적 돌봄의 과제와 목회적 돌봄 방안과 한국교회의 비판적 대안을 찾을 수 있었다.

목회적 돌봄의 과제로 먼저 회심한 성도들이 몸 담았던 신천지와 복음방에 대해 살펴보

는 것이다. 복음방 교육구조 분석을 통하여 회심한 성도들의 신앙적 혼돈 상태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음으로 회심한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상담해 나가고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이단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자질을 갖추기 위해 이단 상담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보도록 한다. 대부분 신천지에서 성경공부를 배운다거나 추수꾼으로 발각 될 경우 목회자는 그들과 결국 대면하기 마련인데, 이때에 이단 전문상담자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담을 통해 잘 회유해 나간다면, 상처받아 신천지로 아예 돌아서거나 회심할 수 있는 여지를 막는 일은 적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과 심리적 요소를 파악하는 것도 목회적 돌봄의 과제로서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단,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미혹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잠재적 신천지 성경공부자, 잠재적 추수꾼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적 돌봄의 과제로서 중요하다 하겠다.

회심한 성도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을 위한 준비로는 교회의 회심한 성도 돌봄 시스템 마련, 회심한 성도를 위한 후속교육에 대한 준비, 회심한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준비 등이다. 또한 신천지 예방과 대책 등을 준비하여 회심한 성도들과 함께 이단 대책팀을 구성하는 것을 통해 다시금 사명감 있게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힘쓴다. 이런 사항들을 중점으로 목회적 돌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1. 회심한 성도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의 과제

1) 신천지와 복음방 교육구조에 대한 분석

신천지의 복음방은 이러한 포교방식을 통해 끌어들인 기성교회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기초적인 성경코스로 알려져 있다. 신천지는 복음방을 신천지의 신도나 수강자의 집, 또는 문화센

터 카페운영, 대학교 강의실, 지하철 휴게소, 그리고 기성교회의 카페를 통해 운영하므로 포교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면서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130] 복음방 교사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속임수와 거짓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교육하는데, 기성교회 성도들이 복음방 신천지 성경교육을 배우기 시작하면 교리에 쉽게 심취하여 기성교회를 참된 진리가 없고 신천지만이 유일한 진리로 확신을 하면서 신천지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즉, 복음방 교육은 신천지로 입문하는 관문이다.[131] 따라서 신천지 복음방 교육은 신천지의 급소에 해당하고 복음방 교육을 파헤치는 것은 신천지에 대한 초기 대처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복음방 교육에 나타난 신천지의 실체를 밝히 드러낸다면 성도들이 미혹됨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복음방 교육을 분석하기에 앞서 신천지의 성경공부 해석방법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나름대로 상당히 체계적인 세뇌방식임을 알 수 있다. ① 접근질문을 던져 성경에 무지한 사람을 만든다(반대로 자신들은 성경을 통달한 것처럼 인식시킨다). ② 잘못된 성경관을 주입한다(성경구절을 모두 영적 의미를 가진 비유로만 보게 하여 기존교회의 성경관을 파괴한다). ③ 영지주의 성경 해석법에 익숙하게 만든다(성경 전체를 영과 육, 선과 악, 하늘과 땅, 그리고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갈등으로 보는 이분법적 해석과 영과 육의 합일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사상을 따르게 만든다). ④ 각 세대의 종말 시기마다 구원자를 보냈다는 시대 구원론을 주입한다(성경의 역사를 12시대, 8시대, 3시대론으로 풀이하여 신천지 중심 시대론을 제시한다). ⑤ 조작된 구원론을 전제로 자의적인 해석을 시도한다(성경을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 억지 해석하여 신천지

130 박태수, "복음방 교육에 나타난 신천지 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170.
131 Ibid.

가 계시록의 성취이고 교주를 시대 구원자로 암시한다).[132] 이렇게 하여 성도들이 미혹되고 세뇌되어 가는 것이다.

신천지 복음방 교육에 대한 구조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천지의 포교전략에 의해서 '성경을 잘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포교 대상자들은 복음방(2개월)과 초등과정(2개월)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히 신천지교리에 빠져 든다. 특히 한글개역판 성경만을 고집하는 68쪽 분량의 '복음방 교육노트'를 살펴보면, 기존교회 성도의 구원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공격자세를 갖게 만든 후 자신들의 이단교리를 주입시킨다.[133] 신천지 총회복음방 교재교육은 주제와 목적을 따라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구성되어 있고, 커리큘럼은 4단계 총 24개과로 각기 구성되어 있다. 복음방 교재노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134]

복음방 교육노트는 성경공부의 절대성을 심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통해 자기보기를 시도하고 자기의 신앙에 대한 분별과 회개와 감사 등을 통해 세계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자기 목자 바로보기, 종교세계 바로보기 등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순차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정통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말씀임을 강조하여 말씀공부를 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복음방 교사에 대한 신뢰성을 획득하고자 한다.[135]

2) 이단 상담에 대한 이해와 적용

회심한 성도들이 면담을 통해 언급했듯이, 교회 내에 이단과 관련된 대응책들이

---

[132]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198.

[133] Ibid., 199.

[134] 박태수, "복음방 교육에 나타난 신천지 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172.

[135] Ibid.,170-71.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역자들은 목회적 돌봄의 일환으로 이단 상담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어느 정도 체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단 상담에 대한 전이해 없이 이단에 빠진 혹은 빠졌던 성도를 상담하는 것과 이단 상담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상담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연구 참가자들을 인터뷰하기에 앞서 이단에 빠진 내담자 상담의 단계 및 전략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접근하였다. 인터뷰와 상담은 그 속성에 있어 많이 다르지만 대화를 통해 연구 참가자나 내담자의 내면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유사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유영권의 이단, 사이비에 빠진 내담자 상담의 단계 및 전략을 연구하고 인터뷰에 적용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연구 참가자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평가 단계

성도들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게 될 때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 작용하여 빠지게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삶의 상실감이나 불안감, 좌절감이나 고립감 등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만들고, 이단이나 사이비가 어느 정도 돌파구에 부합된다 느끼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분별력 없이 헌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영권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내담자와 상담을 시작할 경우 우선 심리적 상실과 불안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된 계기와 연관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136] 그리고 “최근의 대인관계에서 좌절이나 고립감이 얼마나 심한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137]

---

[136] 유영권, *기독(목회)상담학* (서울: 학지사, 2014), 280.
[137] Ibid.

연구 참여자 A는 젊은 여집사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자기만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 상대적인 소외감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고립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러한 소외감과 고립감이 신천지에 빠지게 된 요소라고 말하였다. 여집사들과의 모임을 통해 느꼈던 상대적 소외감을 신천지 성경공부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비밀을 소유한다는 것으로 보상받고 싶어했던 것이다.

연구 참여자 B는 2청년회 소속으로, 보통은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B는 대학을 들어가지 않았고,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내성적이어서 쉽게 말을 못 붙이는 성격이었기에 청년들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였다. 보통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은 학교, 스펙(spec)[138], 연애 이야기 등인데, 연구 참여자 B는 그 어느 틈에도 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또래에 비해 신앙적인 것에는 관심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또래들과 신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일이란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 B는 빈번히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껴왔었고, 그러한 것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잠재적 요소들이 되었던 것이다.

b. 라포 형성 단계: 꾸준한 사랑, 인내 그리고 감정적 지탱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나 빠졌다가 회심하여 나온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면담할 때, 우리가 주의해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분열(splitting)을 통해 자신이 속한 이단,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을 선하게 보고 상담자를 악하

[138] 영어단어 Specification의 준말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등을 합한 것 등 서류상의 기록 중 업적에 해당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게 보아 나쁜 사람으로 간주하는 분열적 방어를 보이기 때문이다.[139]

실제 인터뷰를 하기 1년 전 연구 참가자 B가 신천지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 연구 참가자 B를 상담하며 회유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이다. 물론 폭력적인 언어를 내뱉지는 않았지만 회유하려는 나에게 약간의 짜증 섞인 말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적이 있었다.

유영권은 이러한 내담자의 반응에 대해 "상담자 역시 짜증을 내거나, 참지 못하고 가르치려 하고 분노하는 등 내담자를 쉽게 놓아버리는 역전이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가르치거나 교리적인 것을 수정하려는 역할을 해서는 치료적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말한다.[140]

나 또한 연구 참가자 B가 자신이 신천지에서 배웠던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러한 나 역시 짜증과 분노, 놓아버리고 싶은 역전이 일어났었다. 하지만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더 악화될 것 같아 감내하면서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다. 물론 결정적으로는 먼저 신천지 성경공부를 하다가 뒤늦게 잘못된 성경공부인지를 깨닫고 연구참가자 B의 어머니가 회유 작업에 큰 역할을 했지만, 언제든 돌아와도 받아줄 수 있다는 자세로 접근한 나와 그리고 함께 회유에 힘썼던 집사님들도 회심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인터뷰할 때 그들의 저항에 많은 인내와 지탱하는 사랑(sustaining love)의 자세가 필요하고, 지지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139] 유영권, 282.
[140] Ibid.

다른 내담자들에 비해서 더 강하게 필요하다.[141]

그러기에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에 대하여 교화하거나 논쟁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든든하게 내담자 편이라는 느낌을 주어야 이단 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의심을 가질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c. 핵심문제 탐색 단계

내담자들이나 회심한 자들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었던 데에는 여러가지 심리적 요인들과 대인관계적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역동을 찾아 심리적 외상의 흔적들을 말로 표현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142]

나는 연구 참가자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던 심리적 요소와 대인관계적 요인들을 그들 스스로 탐색해보고 정리하여 말해보길 원했다. 왜냐하면 연구 참여자 스스로가 왜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과 그것을 표현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 그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예방적 차원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d. 왜곡된 인지 수정단계: 윤리적 가치관 확립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내담자들은 거짓된 성경에 대한 해석과 신학적 사고로 인해 무너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성경해석과 말씀으로 다시 서게 해야 한다.[143]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고 혼돈된 자신의 정체

---

[141] Ibid., 283.
[142] Ibid., 286.
[143] Ibid.

감을 확실하게 해줄 확실한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연구 참여자 A와 B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신천지에 빠지기 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했고, 그 이해를 통해 성장하고 싶어했다. 그러다 그들은 신천지의 거짓과 속셈을 모른 채 성경에 대해 단순 명확하게 알려주는 신천지 성경공부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신천지의 논리에 갇혀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천지에 안정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의존하게 되었다. 이렇듯 그들은 신천지로 인해 거짓된 성경해석과 잘못된 신학적 사고를 갖게 되었기에 다시금 바른 성경해석과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자 및 교역자는 성경적 지식과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등에 대해서 명확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e. 외상과 상처 명료화 단계: 기억하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상담가나 연구자가 부담스러운 것은 그들의 아픈 기억이나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금 회상하게 하면서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영권은 “드러내기 싫은 기억이라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상담자 앞에서 자신의 어두운 기억들을 드러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144]

다행히 연구 참가자 A와 B 둘 다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았고, 신천지에서의 경험들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서 그곳에서의 경험들과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조금 주저하기는 했어도 거부하는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고마운 것은 지난날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에 대해 자책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신천지에서의 경험들을 숨기지 않고

[144] Ibid., 288.

말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인터뷰의 질문과 대화를 통해 자신과 좀 더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 속 시원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자책감을 넘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경험들에 대해 어리석었다는 수치감으로 숨기려 한다. 하지만 안전하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억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감정적 정화를 할 수 있고 더 이상 수치심과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45]

f. 종결 단계

이단 상담이나 회심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난 후, 그들이 치료가 되었거나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유영권은 크게 3가지 증상을 보일 때 치료 효과나 신앙이 회복이 되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로 내담자가 더 이상 유기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랑으로 수용하시는 안정된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둘째로 고립되지 않고 바깥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을 때, 셋째로 다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회생활과 친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이다.[146]

실제로 연구 참여자 A와 B의 신앙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나는 지켜보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에서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회 안에서 고립되지 않고 교류할 대상을 찾아가며, 교회 행사나 중요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맡아서 해 나

---

[145] Ibid.
[146] Ibid., 294.

갈 때 치유되고 회복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3)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과 심리적 요소 파악

면담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소외감이나 말씀에 대한 불만족 등은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요소임이 밝혀졌다. 이렇듯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된 특징을 4가지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단들이 노리는 표적들이다. 교회에서 소외되거나, 목회자에게 불만이 있거나, 신앙의 형태가 맞지 않거나, 교인들과 불화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이단들의 안테나에 잡히게 된다.[147] 둘째,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가정은 우리의 원만한 삶을 위해 중요하다. 그런데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 경우 특히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따뜻한 소속감과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증대하면서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경우가 많다. 엄격하고 권위적인 가정에서 생활하던 자녀들이 학교나 직장생활을 위해 멀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도 이단들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있다.[148] 셋째,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이다. 경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진다거나, 직장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동료들과 불화하는 경우 이단들에게 유혹되기 쉽다. 곤경에 대한 도피처로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149] 넷째, 지나치게 신비적이고 열광적인 신앙형태를 추구하는 경우이다. 치유, 방언, 기적, 입신, 천국과 지옥의 경험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성도들은 열광적인 주장을 일삼는 이단들에게 좋은 표

---

[14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우리 주변의 이단들*, 19.
[148] Ibid., 20.
[149] Ibid.

적이 된다.[150]

위에서 언급한 이단에 빠지는 네 가지 특성과 함께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지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영권 교수의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적 요소와 프로이트의 집단심리이론을 참고한다면 그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영권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적 요소 중 첫 번째로, 가치관 부재로 인한 혼돈감을 내세웠다. 그는 “이단과 사이비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욕구에 의해 생성된다”고 말한다.[151] 또한 “급속하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가치관의 혼돈과 아직 자리잡지 못한 가치관의 부재는 이단이 침투할 틈이 된다”고 말한다.[152]

연구 참여자 A는 신천지에 빠지기 전 경제적 불안과 종교적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당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신앙의 연륜은 있지만 신앙이 정돈되지 못한 혼돈스러운 상황이었다. 그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기도를 해주고 성경공부를 함께 하자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 동안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했던 신앙이 신천지 성경공부를 통하여 ‘이것이야말로 참 진리라는 확신’과 더불어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가정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였고, 몇 년 전부터 자신과 남동생은 아버지와 살게 되었으며, 여동생은 엄마와 살게 되었다.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로 연구 참여자 B는 교회에서 유명한 장난꾸러기에서 부쩍 말이 없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내성적이고 위축된 아이로 변하게 되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이 나뉘어지자 양쪽 가정형편

---

[150] Ibid.
[151] 유영권, 274.
[152] Ibid.

은 더욱 힘들어졌다. 연구 참여자 B는 각종 아르바이트에 비정규직으로, 여동생은 미용고를 졸업하고 미용사로 일하며 서로 각자 가정의 가계를 책임져야만 했다. 그렇게 가정은 비록 나뉘어졌지만 교회에서는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라도 서로 만날 수 있어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그러다 연구 참여자 B는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서 어느 정도 계급이 올라 여유가 생겨 성경책을 읽을 시간이 많아지면서 신앙에 대한 궁금증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불안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는 병장 휴가를 나와서 어머니와 신앙적 이야기와 앞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 B의 어머니는 그때쯤 신천지 성경공부에 매료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 B의 어머니는 연구 참여자 B에게 함께 성경공부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 B는 전역을 앞둔 휴가를 나오면서부터 신천지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B 역시도 신천지 성경공부를 하면서부터 "뭔가 말씀이 선명해지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두 번째로, 일차적 고립감과 이차적 고립감을 말한다. 교회나 성도들에게서 상처받은 자들은 그 상처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 그리고 점점 위축되어 사회적 대인관계를 끊거나 자신 안에만 갇혀서 헛된 생각들을 하는 일차적 고립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고립감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이단, 사이비 종교는 새롭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의 느낌을 제공해 주고 자신으로부터 나와 이단, 사이비 종교 공동체 속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153] 하지만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면 이들은 가족에게 사탄이 들어있다고 세뇌교육을 받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

[153] Ibid., 275.

을 구출하는 노력이 헛되게 한다. “부모나 가족이 가장 큰 적으로 간주되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과 점점 단절하고 고립되어간다. 이것은 이차적 고립감이다.”[154]

연구 참여자 A는 인터뷰를 통하여 교회 부부모임을 하면서 소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른 여집사님들은 한 교회에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같이 모이는데, 자신만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소외감을 느꼈고 위축 되었으며 상처가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지 않으려 했고, 그들보다 더 나아 보이려는 헛된 생각들을 했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 A는 인터뷰를 통해 그러한 일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연구 참여자 A가 신천지 성경공부를 하면서 받았던 느낌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는” 그야말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정다감하고 영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물론 성경공부를 끝내고 신천지 회관에 가면서부터 경쟁이 치열해 차가운 느낌과 더불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에게 거짓말하며 점점 단절되어야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말이다.

연구 참여자 B는 다른 청년들과는 달리 대학을 들어가지 않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청년들이 모여서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의 공통분모가 적었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 B는 빈번히 소외감을 느끼며 1차적 고립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신천지 성경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영적인 돌봄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요소들이 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교정적 정서체험(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이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경우 대인관계의 상흔이 있거나 가족간의 의사소통단절, 학업 부적응, 심한 좌절감 등

[154] Ibid., 275-76.

무의식적으로 억압하여 누르려고 하는 기억들과 경험들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155] 이들은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담아주고 수용해 줄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러면서 착취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에 빠지게 된다. 일단 이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수용 받는 느낌을 받고 응집성 있는 집단에서 그 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억압된 기억들을 내놓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즉, 감정 정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A, B 둘 다 내성적이고, 감정을 억누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평소 대인관계에 있어서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경향이 있었고, 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속내를 털어 놓는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평소에 감정을 억누르는 만큼 어느 곳에서 만큼은 충분히 수용 받고자 갈망 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신천지는 그것을 이용해 그들에게 수용 받는 느낌을 제공해 주었다고 분석된다.

네 번째로 분열적 방어와 도덕적 방어이다. "만족을 주는 어머니는 이상적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 만족스러운 부분을 내면화하여 중심자아를 형성한다. 반면 박탈하는 어머니는 반리비도적(anti-libidinal)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 박탈하는 측면을 내면화한다."[156] 아이는 부모의 실망적인 면에 대해 그것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실망적인 부모와도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로, 박탈하는 대상조차 내재화하여 바깥 대상을 선하게 만들고 악한 대상은 나이지 바깥 대상이 아니라는 도덕적 방어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도덕적 방어를 하는 경우 실제 부모에 대한 선한 환상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이 나쁜 대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과도한 죄책감으로 인해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말에 지나치게 순종적이고 의존적으로 될 수 있다. "억압받

[155] Ibid., 277.
[156] Ibid.

은 경험을 한 자아가 억압하는 바깥 대상에 병리적인 이끌림을 가지게 되어 자신을 확 끌어주며 카리스마 능력을 소유한 사이비 교주들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된다."[157] 신흥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개인적인 성장과정에서의 상흔적인 경험들을 통하여 이러한 도덕적 방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 A, B 둘 다 교회에서 평소에 순종적이었고, 자기주장을 잘 펼치지 못하고 수동적이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끌어가기보다 누군가가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습성이 강한 성도였다. 다른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평가하기에도 그야말로 모범적인 성도라 표현할 만한 성도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동적, 순종적, 의존적 습성들이 타고난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성장과정과 상흔의 경험들을 통하여 생겨난 도덕적 방어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성도들을 환영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이면을 볼 수 있어야 그들을 온전히 돌보고 맹목적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집단 심리이론을 통해서 왜 이성적이고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개인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집단 안에서 허점투성이인 교리들을 신봉하고 부모와 자식까지 버리는 헌신을 다하는지, 또한 왜 같은 인간을 메시아로 믿고 무조건 맹종하고 자신의 돈은 물론, 인생을 바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감정적 유대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본능을 제어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 즉 성숙한 개인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집단에게는 이같은 제어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집단은 '충동적 자아, 변덕스러우며, 흥분하기 쉬운' 감정과 욕망의

[157] Ibid., 278.

덩어리로 존재한다.[158] 집단은 감정과 욕망의 유대를 통해서 개인의 비판성과 독립성을 탈취해 버린다. 따라서 고상한 인간도 광기 속에서는 쉽게 야만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집단은 비판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나 불확실성을 알지 못하고, 다만 외적 영향이나 암시에 의해 매우 경솔하게 충동적으로 대응한다. 집단은 쉽게 흥분할 수 있고, 일단 흥분하게 되면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집단은 감정적 유대에 의해 움직인다.[159] 사이비 종교지도자들은 집단의 감정적 유대를 이용하여 자신의 절대 권력과 이익을 극대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160]

둘째로, 이상화와 동일시다. 구성원들 간에 공통된 감정이나 경험이 많으면 부분적 동일시도 더욱 잘 이루어진다. 집단 구성원 사이의 상호 유대가 중요한 감정적인 공통 자질에 바탕을 두고 있는 동일시의 성격으로 나타난다.[161] 동일시는 특정인물이나 정치, 종교이념 등을 자신의 이상적 자아로 삼고 그 모델처럼 되려고 하고 모델을 따라 자신을 형성해 나가려고 할 때 발생한다. 이상화는 자신의 욕구를 대상에게 투사시킨다. 대상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대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한다. 그 결과 대상이 부해질수록 자아는 빈곤해지고, 자아는 대상에 대한 노예의 상태로 전락한다.[162]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경우가 이상화의 경향이 극대화된 경우가 많다.[163]

---

158 이경재, *프로이트와 종교를 말한다* (서울: 집문당, 2012), 141.

159 유영권, 141.

160 Ibid., 142.

161 Sigmund Freud, *Massenpsychologie und Ich-Analyse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trans. 이상률 (서울: 지도리, 2013), 63.

162 이경재, 151.

163 기향금, “이단현상에 대한 종교심리학적 고찰-신천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교 대학원, 2008), 61.

이렇듯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라 해도 같은 테두리 안에서 조화되기 원하는 인간의 욕구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합리적 결정을 하기 원하는 욕구를 압도한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이단에서는 따뜻한 배려와 위로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한 유대감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이단에서 제공하는 강한 유대감에 마음이 끌리며, 동시에 그곳에서 제시하는 지도자와 그가 제시하는 환상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켜 합리적 사고와 비판적인 시각을 해제시킨다.[164]

2. 신천지 예방 및 대처방안

1) 신천지 접근 방법

시간이 흐를수록 신천지의 접근 방법과 미혹의 형태도 수시로 변하고 있다. 더욱 교묘해지므로 이에 대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 했다. 따라서 대책마련에 도움이 되는 신천지의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 평범한 교인인 것처럼 접근한다.

연구 참여자 A의 케이스와 같이, 추수꾼은 거짓말과 속임수인 모략을 사용하여 신분과 언행을 위장한다. 추수꾼은 교회를 바벨론, 가나안, 여리고, 사탄의 집으로 보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 또는 백색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된다고 믿고 있다.[165]

b. 설문지 혹은 강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접근한다.

신천지의 접근형태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앙케이트나 리서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오해없이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대상은 주로 예비대학생(고3)이나 대학

---

164 Ibid., 68-69.

165 김덕연 et al., 236.

생을 비롯한 청년들이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성격(혈액형별)이나 심리유형(MBTI), 그리고 행동유형(DISC)을 알려준다는 등의 설문지(앙케이트)를 가지고 접근한다.[166]

c. 자신의 신분을 가장하여 접근한다.

신천지인들은 신분 위장한다. 이름과 나이 등을 속일 수 있으며, 포교를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으로 자신과 강사들의 신분을 위장하여 접근한다.[167]

d. 꿈이나 환상을 보았다거나 혹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접근한다.

연구 참여자 A도 겪었던 일로, '기도원이나 교회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전화번호를 보여주셨다. 성도님이 외롭게 사막을 걸어다닌다. 깊은 우물에 빠졌다는 등의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핸드폰 문자나 전화 통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168] 이것은 꿈이나 환상, 그리고 예언에 민감한 기독교인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미혹하는 고도의 수법이다.

e. 문화강좌(구청, 동사무소, 대형할인매장,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

신천지는 다양한 문화강좌 광고를 이용하여 접근하지만, 신천지의 문화강좌 전단지에는 주소, 위치(약도), 강사진, 원장, 대표 전화번호 등이 기재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169]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정확하게 교육 장소,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지 않는 문화강좌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더불어 신천지는 문화강좌가 아닌 성경공부가 목적이므로, 문화강좌를 하다가 QT, 성경공부를 제의하게 되어 있다. 성경공부나 QT, 멘토 관계로 연결하는 문화강좌는 신천지가 활용하는 수법이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166] Ibid., 214.
[167] Ibid., 236.
[168] Ibid., 221.
[169] Ibid., 216.

f. 기도원 및 교회공부방

신천지의 또 다른 접근 방법은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침투하는 것이다. 기도원 원장들이 미혹되어 신천지 신도가 되면, 이 기도원에서는 이미 성도들을 미혹하여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성경공부가 끝나면 신천지 신학원으로 유월(정통교회에서 신천지측으로 옮기는 것)을 시킨다. 또는 기성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 침투한다. 기도하는 교인들에게 접근하여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는다거나, 교회를 못 정해 기도하러 왔다는 거짓말을 하여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하여 추수활동을 하고자 한다.[170] 교회가 운영하는 공부방 접근 형태는 침투하기 위한 발판으로, 신천지인 자녀들을 공부방에 먼저 등록시킨다. 그 후에 성도들에게 접근한다. 침투하기 전에는 대상 교회에 대해 면밀하게 사전 조사를 한다. 등록 후에는 약 1-2년 간 실체를 감추고 있다가 유대 관계가 형성되면 교인들에게 접근한다.

g. 인터넷 활동

인터넷에서 직접 카페를 운영하거나, 기독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들에게 말씀을 보내주는 방법을 통하여 미혹하고 있다. 또한 UCC 동영상을 만들어, 신천지 및 이단 단체들을 건전한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댓글 등을 통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있으며, 이단 상담사들을 음해하고 있다.[171] 그래서 인터넷 문화에 민감한 청년 및 청소년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미리 신천지 및 이단 신도들이 인터넷에서 거짓으로 조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예방 교육하여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0] Ibid., 219.
[171] Ibid., 220.

h. 우연을 가장한 만남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앉아 있는데, 우연히 어릴 적 친구나 선후배 같은 교회를 다녔던 지인 등을 만날 때가 있다. 이때 서로 반가워하면서 안부를 묻고, 연락처를 주고 받는다. 나중에 만나자는 연락이 오고, 만남을 몇 번 지속하면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씀을 잘아는 분(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이 있다며 성경공부를 하자고 제안'한다.[172] 위와 같은 형태는 전형적인 신천지 미혹 전도 방법이다.

2) 신천지 및 이단의 피해 대처방법

a.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천지의 속성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기성교회에 대한 강한 비판과 신자들의 성경에 대한 궁금증과 무지를 자극하여 자신들의 활동을 비밀로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회에서 색다른 용어들 즉 비유, 지식, 성경 보는 법, 실상, 배도 멸망 구원, 모략, 말씀의 짝, 대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심해도 된다. 무엇보다도 신천지는 성경의 궁금증을 자극하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성경공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신천지의 교리의 모순점을 가르치고 신자들에게 복음적인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173]

b. 타 교회나 교단과 연합하여 적극적으로 공동대처를 해야 한다.

교회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막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야 한다. 교회의 교역자들이 피해상황에 대해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들과도 공유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172] Ibid., 222.
[173]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209.

한다.[174]

c. 신천지 피해사례들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각 교회에 침투한 추수꾼들이 교회 안팎에서 기성교회 신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떤 피해사례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려야 한다. 신천지 추수꾼들은 자기 신상을 공개하기를 꺼리고 사진을 찍지 않으려 하며 심방 받기를 싫어하고 주일 저녁이나 월·화·목·금에 신천지 교육을 받으러 간다. 따라서 교적부 기록을 의무화, 주일 예배나 집회의 모니터링, 탈퇴 교인의 간증, 신천지 추정 신자에 대해서 1년간 직무정지와 이단 상담을 받도록, 1년에 2회 정도의 예방대책 세미나 개최, 외부성경공부 금지, 새가족 등록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175]

d. 세미나교육 및 이단에 대한 연구

성도들에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실체와 접근방법, 대처방법 등을 세미나를 통해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 이단에 대한 공부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한 교회들은 교육을 하지 않은 교회보다 이단에 대한 예방효과가 훨씬 높을 것이다.[176]

e. 추수꾼 발각 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추수꾼이 발각 되었을 때에 저들은 반드시 위장회개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쉽게 동정하거나 속지 말아야 한다. 신천지는 기성교회에서 신분이 노출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까지도 가르치고 있다.[177]

---

174 김덕연 et al., 224.

175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209.

176 김덕연 et al., 225.

177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209.

f. 피해자 가정을 위한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다.

한 번 이단에 들어갔다 나온 신도들이 다시 이단에 빠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이단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소위 '따돌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소외와 압박을 이기지 못한 성도는 교회를 옮기거나, 정착하지 못할 경우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며, 다시 그 집단으로 들어간다.[178]

g. 회심한 성도를 위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열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

목회자는 회심하여 돌아온 이들과 성도들이 서로 관계를 다시금 잘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가 회심하여 돌아온 이들에 대해서 대부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 관계가 서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성도들 중에 회심하여 돌아온 이들을 반겨주는 성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계의 마음과 경직된 자세로 대할 때가 많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나서서 회심하여 돌아온 성도들을 교회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회심하여 돌아온 자가 이단에 빠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것은 이단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단들의 전도 전략이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과 심리적 요소들을 성도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이단에는 누구나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하여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회심하여 돌아온 이들이 특별히 악한 대상이 아닌 나와 같은 평범한 신앙인임을 깨닫도록 한다. 그리하여 회심하여 돌아온 성도에 대한 경계의 마

[178] 김덕연 et al., 225.

음과 경직된 자세를 해제하도록 유도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용서의 마음과 환대의 자세를 가지도록 교육해야 한다. 회심하여 돌아온 이들에 대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시선은 '연민의 시선'이다. 그런데 그 시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서의 마음과 환대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용서의 마음과 환대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강남순은 '용서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용서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의 실존적 조건 때문이다. 이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은 물론 타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동시에 이러한 불완전함은 인간이 끊임없는 형성 중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 준다."[179] 즉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모든 인간은 되어가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용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용서에 따른 환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회심하여 돌아온 이들이나 그들을 맞이하는 자신들 모두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고, 되어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예수님과 같은 연민적 시선을 갖추어 용서의 자세와 환대의 자세를 갖추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회심하여 돌아온 이들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해야 한다. 회심하여 돌아온 이들은 자신들이 돌아온 탕자, 타락한 성도, 불순한 성도라는 자의식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지조를 지킨 순수한 성도라는 인식이 강하고, 회심하여 돌아온 이들은 신앙의 지조를 버렸다 돌아온 불순한 성도라는 인식이 성도들 마음 안에 집단적 무의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돌아온 이들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심하여 돌아온 이들이 새

---

[179] 강남순, *용서에 대하여* (서울: 동녘, 2017), 95.

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 이전 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긍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강남순은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구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탄생성'은 '네이털리티'(natality)라고 한다. 모든 인간은 바로 이 '네이털리티'를 지니고 있는 존재다."[180] 이 말에 대해서 강남순은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나 자신은 물론 타자도 언제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한다.[181] 즉 과거의 모습에 고착된 '나' 또는 '타자'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희망'을 담고 있는 네이털리티에 대한 '믿음'은, 자신이나 타자를 '사랑'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182]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변화 가능성,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혹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은 공동체 안에 비판과 정죄의식을 버리고 기대와 사랑의 유기적 관계를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심해서 돌아온 양들에 대해 성도들이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깊이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회심한 본인들도 자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깊이 가질 수 있도록 힘써 교육해야 한다.

h. 반드시 이단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신천지 집단에 빠진 성도들의 회복과 치유는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위장하여 신천지를 벗어난 것처럼 가족과 주변을 속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단 상담 치료를 받아야 정상적인 교회생활이 가능하

---

[180]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213.

[181] Ibid., 214.

[182] Ibid., 215.

다.[183]

i. 법률공방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에 공격적인 포교로 인해 피해와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다음의 법률조항을 참고로 하여 경고문을 부착하므로 신천지와의 법률공방에 대비할 수 있다. 신천지 출입금지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다. 형법 제 158조(예배 방해), 제314조(업무 방해), 제 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5조 (단체 등의 이용, 지원) 등이다.[184] 교회들이 교회입구 출입문에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를 게재함으로 나름대로 퇴거 불응 및 무단침입에 대한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더 실질적인 법적 제재를 모색해 본다면, 신천지 추수꾼 및 신도에 대한 출입자체를 불허하는 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다. 신천지 신도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는 행위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니며, 신천지에서 위반할 시에는 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까지 감안해야 하기에 신천지에서는 추수꾼 활동 자체를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185]

3. 잃었던 양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 방안

신천지로부터 회심하여 돌아온 잃었던 양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적극적으로 목회적 돌봄을 실시해야 한다. 목회적으로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다시금 신천지나 다른 이단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를 따스하게 맞아주었던 아버지처럼 인내와 사랑으로 돌아와서 품에 안긴 양들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183]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210.
[184] Ibid.
[185] 김덕연 et al., 239.

1) 회심한 성도를 위한 후속교육 마련

회심한 성도들과 면담을 하면서 그들에게서 강하게 느꼈던 것은, 그들의 소망 중 하나가 '각 교회 내에 안산 상록수 교회와 같이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을 위해 전문적인 후속교육 프로그램이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나'하는 것이었다. 먼저 후속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재교육하여 바른 신앙관을 다시금 갖게 하는 교육이다. 후속 교육 안에는 이단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성서해석 비판을 한 후 바른 교리와 바른 성서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의 과정들이 담겨있다. 특별히 신천지 관련해서 후속교육은 더욱 체계화 되어 있다. 만약 교회 내에 후속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려면 두 가지 방법으로 마련할 수가 있을 것이다. 먼저는 목회자가 직접 이단 전문 상담소에 가서 배우는 방법과 신천지에 관련된 책과 자료들을 통해서 익히는 방법이 있다. 최선책은 직접 가서 배워와 교회에서 교육하는 방법이겠지만, 시간과 비용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경우다. 차선책으로는 신천지의 교리와 성서해석, 비유풀이나 요한계시록 등을 비판한 서적들을 사서 익히는 방법인데, 이것 또한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투자되기는 한다. 그러나 현재 신천지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고 후속 교육자료로 삼을만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에 이것들을 잘 이용하여 차선책으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2) 회심한 성도를 위한 성경공부 마련

회심한 성도를 위한 교회 자체 내 성경공부를 마련해야 된다. 회심자들이 신천지에 빠진 이유가 누군가(추수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며, 신앙성장을 위해서 성경공부를 제안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회심자들은 이미 영적인 관심사가 있고, 신앙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 내에 회심자들

이 성경공부 할 수 있는 성경공부 시간의 정착은 반드시 마련 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경공부와는 달리 일대일로 양육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피교육자가 교육을 잘 흡수하고 있는지, 무엇을 궁금해 하고 무엇을 더 보충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의 규모와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이 교육자 중심이 아닌 피교육자 중심으로 맞추어 진행되야 한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교회 내 성경공부가 대중을 위한 성경공부 방식이다 보니 거기에서 소외되는 교인들을 차마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그 한계라 말할 수 있겠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경공부에 참여한 성도가 '어느 정도 이해 했는지의 여부도 모른 채 수료시키기에 바빴던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과 더불어, 성경공부가 '교인들의 신앙발전을 목표 삼기 보다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나, 교인들을 교회 안에 잡아두기 위한 하나의 좋은 구실로 삼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본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공부는 자꾸만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가 교인들로 하여금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게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본다. 사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실시했던 성경공부의 내용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성경공부 교재에는 신앙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 교육자는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느냐의 여부에, 피교육자는 얼마나 진심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로부터 회심한 성도를 교육하는 데에 있어 효율적인 성경공부 교재는 되도록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줄 수 있는 교재여야 한다. 왜냐하면 회심자들이 배워 온 신천지의 성경공부 방식이 이만희의 신격화와 신천지 구원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여러 성구들을 전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성경공부 방식이었기에, 회심한 성도들을 위한 성경공부는 되도록 성경의 본문

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신경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성경공부 교재를 추천하자면 베델성서연구 교재와 엔크리스토 제자양육성경공부 교재를 추천한다. 베델성서연구 교재는 20주 과정으로 하여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구원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유용하며, 엔크리스토 제자양육성경공부 교재는 일대일로 신앙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본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3) 회심한 성도를 위한 상담 시스템 마련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지만 회심한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이단에 빠졌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돌아와 교회를 적응하고 회복해 나가는 데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만약 이 적응기간 동안 혹시라도 교인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면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해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장과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충분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회심한 성도를 위한 상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각 교회마다 회심한 성도를 위한 상담 시스템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적인 기독교 상담사를 구하려면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고, 목회자가 직접 목회상담을 배워 성도들을 돌보려 한다면 그 역시 시간과 비용 면에 있어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먼저, 이단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구축하는 것이다. 회심한 성도를 위한 상담은 이단과 관련된 특수 상담이기 때문에, 목회상담과는 달리 이단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단 상담과 관련된 책이나 인터넷 사

이트 등을 참고하여 이단 상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목회자가 이단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갖추고 있어도, 회심한 성도와 상담할 때 겪을 시행착오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회심한 성도를 이단 상담소와 지속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것이다. 보통 이단 상담소에는 회심을 시키거나 회심한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각 교회에서 상담을 하다가 한계를 느끼거나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상담 비용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이단 상담소를 연결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

4) 회심한 성도를 위한 영적 돌봄 시스템 구성

회심한 성도들이 교회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다. 왜냐하면 소외감을 느껴 소외감을 충족하기 위해 이단에 빠졌었기에, 회심하여 돌아왔을 때 다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연락하고 돌봐줄 팀을 2-3명으로 구성하여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회심한 성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심한 성도와 돌봄 팀원들이 함께 모여 외부에서 만나 식사나 티타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돌봄 팀원들이 회심한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회심한 성도들이 신천지에서 느꼈던 영적 돌봄 이상으로 교회 내에서 자신들을 향한 뜨거운 영적 지원과 돌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5) 회심한 성도를 위한 치유공동체 구성

연구 참여자 B가 신천지로부터 혹은 이단으로부터 회심한 성도들끼리 만남의 자리를 가

졌으면 하는 바람을 인터뷰하면서 비추었다. 사실 내가 제안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혹시나 서로 불편해할 것 같아서 조금은 망설였던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 연구 참여자 B가 먼저 제안을 해서 사실 반가웠던 제안이었다. 왜냐하면 유영권이 제안한 대로, 연구 참여자 스스로가 왜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과 그것을 표현해보는 과정, 그리고 회심 후의 일상들의 나눔을 통하여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86]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그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예방적 차원에 있어서도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자기와 같은 아픈 경험을 겪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회복과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 내의 회심 성도들을 모아서 할 수도 있지만 지역 교회, 또는 같은 교단 내의 회심한 성도들을 모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회가 장소와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6) 회심한 성도를 위한 간증 프로그램 실시

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자 A는 신천지로부터 회심하여 돌아온 후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기존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신천지에 다녀왔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다 회심하여 돌아온 지 반 년이 지날 때쯤 구역 예배자리에서 누가 밝히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연구 참여자 A 스스로 자신이 신천지에서 성경공부한 사실과 신천지의 폐해를 밝혔다고 한다. 사실 그러한 자신의 치부를 말 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가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밝힘으로써 이제 회복이 되었음을 밝히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치부가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였다. 그러면서 연구 참여자 A는 교회에 회심한 성도를 위

[186] 유영권, 286.

한 간증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면담 도중 밝혔다. 왜냐하면 간증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사과하고 용서받아 떳떳해지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더불어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밝혀 자신과 같이 신천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힘쓰고 싶어서였다. 회심한 성도를 위한 간증 프로그램은 이단 대책 경계 주일을 지키면서 그 주일 예배 때나 혹은 오후예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7) 회심한 성도와 함께 이단 경계 주일 계획 및 실행

이단 경계 주일을 정하여 그 주간은 이단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 및 설교를 실시하도록 한다. 여기에 회심한 성도와 함께 이단 경계 주일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회심한 성도를 교육시켜 강사로 세우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보다도 호소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 교회마다 정해져 있는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등 한 주간만큼은 이단에 대한 경계와 관련된 설교를 하고, 평일이나 주일 오후에는 이단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각 이단별 문제점과 폐해, 대처방안 등을 성도들로 하여금 숙지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이단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도록 한다. 특별히 앞에서 제시했던 회심한 성도를 위한 간증 프로그램을 주일 오후 시간으로 배정하여 많은 성도들이 이단(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8) 회심한 성도와 함께 이단 대처팀 조직

회심한 성도들과 더불어 그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이단에 대처하기 위한 이단 대처팀이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개신교는 총회와 노회보다 개별 교회 중심으로 교회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고 신천지 추수꾼에 대한 대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각 교회별로 이단 대처팀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단 대처팀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회심한 성도들의 의사를 묻고 팀원으로 세울 수 있다면 참으로 든든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단(신천지)에 빠지는 원리를 알고 있고, 이단(신천지)의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영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이미 그 영향력이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이미 경험을 했다. 면담에 참여한 A와 함께 참여자 B와 그의 어머니를 회유했기 때문이다. 만약 본 연구자만 회유하려 했다면 아마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니 참여자 B와 그의 어머니는 회심하지 않았을 줄도 모른다. 그러나 참여자 A는 이미 신천지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신천지의 논리와 미혹 방법과 지금 신천지에 빠져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잘 알고 있었다. 참여자 A는 참여자 B와 그의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진 것을 눈치채고 나와 더불어 집사님 두 분과 함께 이단 대책팀을 구성하여 참여자 A와 그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회유의 작업들을 진행해 나갔다. 결국 회유의 작업은 성공했고, 그들은 다시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신천지로부터 회심한 참여자 A의 적극적 도움 때문이었다. 이처럼 회심한 성도들을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주요 멤버로 세워준다면 누구보다도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 되는 것이다. 물론 회심한 성도가 교회에 돌아와 어느 정도 회복의 기간을 가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심한 후 교회에 돌아와 어디에 소속되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기간이 있기 마련인데, 회심한 성도를 이단 대처팀으로 세우는 것은 그러한 방황의 기간을 줄여주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면담을 하면서 참여자 A와 B와 함께 나눴던 얘기로, 각 교회마다 평신도 이단 전문 사역자를 키우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신대와 목원대에는 이단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우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이단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다. 교회에서 이런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주

고 각 교회 내에 이단 전문가들을 세워 놓는다면 이단 대처에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인터뷰에 참여했던 참여자 B가 지금 총신대에서 이단 전문 상담사 과정을 배우고 있다.

9) 회심한 성도의 가족을 위한 교육과 돌봄 시스템 마련

회심한 성도를 교육하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가족을 돌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목회자와 성도가 돌볼 수 있는 능력과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떠나서는 결국 가족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목회적 돌봄을 받더라도 집에 가서 냉대를 받는다면 신앙이 회복되기란 힘들 것이다. 그래서 가족구성원들이 따스한 애정과 관심으로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을 아물 때까지 잘 돌봐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구성원이 신앙으로 하나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으리라 생각 된다. 그러기 위해서 회심한 성도의 가족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신앙교육과 돌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신앙교육을 통해 회심한 성도와 신앙적 교류를 통해 신앙의 파트너로 성장시키는 데 있고, 돌봄 교육은 대화법이나 상황별 대처법 등을 교육시켜 회심한 성도의 마음과 영혼을 잘 돌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4. 한국교회의 비판적 대안

윤리적으로 문제있는 교회가 이단 신천지를 비판하기 어렵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목회자가 이단 교주 이만희를 정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결한 교회가 신천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교회가 교리적인 잣대로 이단을 정죄하는 동안 사회는 공공성을 기준으로 이단문제를 바라본다. 주변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상식적 수준의 이단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단문제는 교회내의 이권다툼 정도로 비춰질 수 있다. 정결한 교회의 상식적 이단 대처가 사회

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교회가 이단들보다 윤리적으로 우월할 때 사회는 교회의 이단 대처에 공감하게 된다. 교회 지도자가 이단 교주들보다 도덕적으로 순결할 때 교회의 이단 대처가 사회적 공신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떤 비판적 대안을 가지고 이단에 대처해야 하겠는가?

1)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80년대 이후, 교리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단연구가 주를 이루면서 사회는 교회의 이단 연구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교회 내 주도권 다툼 정도로 이해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어졌다. 이는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순기능을 시도하는 이단들의 포교전략 변화와 함께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눈에 띄게 축소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187] 신천지가 양의 탈을 쓰고 활동할 때, 가정 파괴와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그들의 종교사회적 역기능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폭로하는 한편, 그 내재된 위험성에 대해 주변 사회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상식과 사회적 동의에 기초한 교단의 이단 대책이 마련되어야 이단 사이비 단체들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동의가 이루어질 때 교단의 이단 대책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188] 여기서 무엇보다 교회가 이단들보다 더 사회적인 순기능을 해 나가야 영향력과 더불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단들에 대한 대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사회의 영향력과 더불어 설득력도 힘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단 단체들보다 더욱 활발한 봉사와 선교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고 설득력을 회복해야 한다.

---

[187] 탁지일, *교회와 이단,* 188.

[188] Ibid., 189.

2) 말씀의 본질과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이단 신천지의 알레고리적(Allegor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성경해석과 핵심 교리들을 보면 황당하고 억지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목회자들은 이러한 어설픈 신천지의 성경해석과 교리들에 성도들이 쉽게 현혹되는 것을 어이 없고 어리석다는 식으로 바라보며 성도들 개인 신앙의 문제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신천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이 신천지의 성경공부와 비유풀이에 쉽게 현혹되거나 그들의 성서해석에 호감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에게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성도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신앙관과 그릇된 신앙관, 성서적인 참된 가르침과 이단적 가르침, 건전한 교회와 이단적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교로 원조하지 못한 목회자들의 문제가 더 크다.[189] 그러므로 나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목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반성하면서 교회 설교 강단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신천지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모색해야 한다.

사실 그 동안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르치기 보다 교인들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목회 입지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이나 성공 등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들이 선포되어 왔다. 즉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회개와 변화를 일으키는 성서의 본질적 가르침을 전하기 보다 성도들을 다독이거나 세상의 성공과 부를 얻도록 부추기는 것에 힘을 더 쏟아 부었던 것이다. 이것은 교회 경쟁이 심해진 한국 사회에서 성도들을 보유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목회자들의 처세적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성도들이 교회에 머물도록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려다 보니 목회자들은 회개나 십자가의

[189] 정창균, "신천지 이단의 성경해석과 설교적 대응," 72.

고난 보다는 축복과 평강, 복 주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성공적인 인생, 행복의 길과 같은 감상적이고 통속적인 주제들로 설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도들이 원하는 문제를 다루다 보니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것, 교리적인 것보다는 인간관계나 성공적인 삶, 처세술이나 방법론과 같은 현실적인 가르침,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설교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190]

이렇듯 한국 교회 강단은 위로, 평안, 행복, 축복, 성공 등 몇몇 주제에 설교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이 얕아지게 되었고 주제에 대한 강조점만이 부각되거나 본문을 이탈하는 설교로 변질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신천지는 한국 기성교회에서 선포되는 본문을 벗어난 초점 잃은 이러한 설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은 다른 것들을 빌리지 않고 성경만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는 지극히 성서중심적인 해석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신천지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병들어 있는 한국교회 설교 강단과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진 현실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 본문과 관련 없으면서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내용들로 채워진 설교는 당장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는 있지만, 성도들을 복음의 본질로 인도하거나 바른 신앙인으로 양육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본문에 철저히 입각하여 깊이 있는 본문해석을 선포함으로 말씀의 본질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190] Ibid.

3) 교리설교와 종말론적 설교가 정립되어야 한다.

데이비드 웰스(David F. Wells)는 ‘신학 실종’에서 전통적인 교리들이 교회 강단에서 사라지거나 밀려나고 있다고 보았다.[191] 이러한 현대적 설교 현상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교리설교는 거의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다. 교리 교육도 세례교육을 전제하지 않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단들이 교리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192] 교리와 관련된 설교는 성도들의 정체성과 분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교리설교는 교인들 스스로가 이단적 가르침이나 성경 왜곡에 대한 분별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이기에 목회자는 조금 딱딱하더라도 교리설교를 통한 교리교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설교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강단에서 유독 요한계시록에 관한 설교는 외면당하고 있다. 몇몇 특정부분은 다뤄지고 있지만 해석의 난해함 때문에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종말론적 소망이 담겨 있는 요한계시록이 소홀히 다뤄지게 되면서 한국 교회 안에는 종말론적 사각지대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교회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각종 이단과 신천지 세력은 자의적인 해석과 잘못된 해석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다.[193]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더욱 강도 높게 연구되어야 하고, 강단에서 심도 있게 설교되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근래에 들어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에 관련된 학문서적과 설교의 방향성의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필찬의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 무엇이 문제인

---

[191] David F. Wells, *No Place for Truth 신학 실종*, trans. 김재영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0), 162.

[192] 최윤배, “기독교 교리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조직신학연구* 20 (October, 2014): 140.

[193] 이필찬, *내가 속히 오리라* (서울: 이레서원, 2009), 6.

가”(2015, 새물결플러스),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2003, 성서유니온선교회), “내가 속히 오리라”(2006,이레서원) 등을 참고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설교의 방향성과 건강한 종말론을 강단에서 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이단의 전유물인 것처럼 방치해서도 안되고, 요한계시록을 기피하거나 설교하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잘 준비하여 설교를 통해 더 이상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종말론적 소망을 강하게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4) 교회의 다음세대를 키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

교회는 지금까지 이전세대들에게 신앙을 이어받은 다음세대들로 인하여 지속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전세대의 신앙이 다음세대로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이어져서 신앙의 맥을 이어나갈 때 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다음세대는 한국교회의 미래이고 소망이다. 만약 다음세대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의 존립여부는 불투명해진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다음세대에 대한 여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감소되고 있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실망과 함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불만이 있고, 교회에 실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신천지는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포섭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천지의 추수꾼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고, 신앙용어에 조금이라도 익숙한 젊은이들에게 기성교회에 대한 실망과 회의감을 비집고 들어가 온갖 호의와 술수로 신천지 성경공부에 참여 시키는 것이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교리와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 다음세대 포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활동력도 강하고 무섭게 헌신할 수 있으며, 그들의 교리와 교세를 힘차게 이어가는 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천지는 젊은 세대 포교에 열을 올리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는 수수

방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을 신천지에게 빼앗기면 빼앗길 수록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대책들이 필요하고, 다음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이단 대책들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교회는 다음세대의 특성을 잘 반영한 예배를 마련하고, 형식이 아닌 의미를 일깨우는 예배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성경공부도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성경공부가 아닌 구성원들이 서로 생각을 나누고 함께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의 대화와 소통이 있는 성경공부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 내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에 쉽게 등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로부터 다음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교단의 교육과 문화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의 창의적인 이단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5) 성경공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성경공부는 목회자가 설교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한 성경적 또는 신학적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보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공부들은 대부분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다기 보다는 교회의 관행적 운영과 교회 내 직분 상승을 위한 코스 정도로 진행되어 온 경우들이 많다. 만약 성경공부를 진행하는 목회자가 관행상 진행하는 성경공부라고 생각하고, 참여자인 성도들이 단순히 교회 직분을 받기 위한 필수코스 정도로만 여기고 성경공부에 참여한다면 많은 수료생들과 직분 자들을 양산해낼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성숙한 신앙인들을 양육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자인 목회자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무엇보다 성도들의 신앙적 성장과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더불어 성도들의 신앙적이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성경공부를 진행하다 보

면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신앙적인 문제나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난해한 성경 구절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질문하기도 하고, 이에 목회자들은 난감해하기도 한다. 이때 목회자가 질문에 대해 얼버무리거나 무조건 믿으라는 식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그 성경공부는 분명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러면 그에 따른 효과는 고스란히 이단이나 신천지가 가져가고 말 것이다. 즉 신앙적 문제로 힘들어 하거나 성경난해구절로 인해 고민에 빠져있는 성도의 영적 갈증을 목회자가 방치하거나 외면한다면 분명 그 성도는 영적 갈증해소를 위한 대안을 찾게 되어 있다. 그러다 이단, 신천지의 목표물이 될 수 있으며, 신앙적 문제와 성경난해구절에 대한 이단, 신천지 그들 나름대로의 답안이 마련되어 있는 성경공부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경공부 시간에 예상되는 신앙적 질문들이나 성경 난해구절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궁금해하고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성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해소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성경공부 도중에 난감한 질문이나 민감한 질문을 던진 성도가 있다거나, 혹은 다수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다루기 힘든 주제나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질문을 받는다면, 목회자는 성경공부 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질문한 성도와 1:1로 만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신앙적,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6) 장애인 성도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이단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에 대해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국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해 집중 사역하는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리고 각 교회 내 장애인 성도들에 대한 돌봄 방안이나 교육프로그램들이 미비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결과로 한국 교회의 장애인들은 이단 문제의 또 다른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이단대책은 거의 전무한 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들의 활동

은 활발하다. 특별히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은 장애인들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허황된 소망을 심어주며 유혹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인터넷사이트에 음성변환이 가능한 각종교리교육용 파일들을 올려 놓는 등 곳곳에 미혹의 덫을 설치하고 있다.[194]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이단들이 장애인들의 간절한 소망과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 함부로 미혹하지 못하도록 힘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장애인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단이나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 예방 교육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

7) 해외 한인교회가 이단과 신천지에 대한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현재 많은 한국 이단들이 해외 한인교회를 분열시키며 혼란을 야기해오고 있다. 각 대륙의 한인집중거주지역은 한국 이단들의 해외 침투를 위한 교두보가 되고 있다.[195] 하지만 한인교회의 경우 효과적인 이단예방교육이나 관련자료들의 확보가 국내처럼 수월하지 않다. 한국의 목회적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단이나 신천지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이단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인교회는 한인교회목회자들을 위해 관련 교단들은 공신력 있는 이단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민 2세들의 이단교육을 위해 영어로 된 이단 대처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해외로 넘어간 한국의 이단과 신천지에 대해서 언제든 맞설 수 있는 방어태세를 구축해놓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해외 한인교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

[194] 탁지일, *교회와 이단*, 196.
[195] Ibid.

D. 연구의 결론

한국 교회는 분명 세계의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전국 어디를 가든 교회가 세워져 있고, 도시의 야경은 온통 십자가로 물들어 있다. 이렇듯 양적으로는 분명 성장을 했지만 질적인 면과 성숙의 면에 있어서는 문제점들이 많고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세습의 문제, 교회의 대형화, 무리한 교회 건축이나 이전 시 헌금에 대한 부담, 목회자의 재정 비리와 이성 문제, 언행과 자질 문제, 목사와 장로간의 갈등과 대립 등 미성숙한 모습들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이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현재 한국교회는 많은 이단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천지로 인한 한국 교회의 피해는 너무나도 심각하다. 신천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신천지는 현재 교회를 와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을 넘어서 사이비 단체로, 신자는 물론이고 비 신자들에게 까지도 강력한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세와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고 날로 확장 되고 있다. 신천지는 정상적인 종교집단이 아니라 거짓말과 연기로 모략과 미혹을 일삼는 이단집단이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의 교리에 미혹 당하여 그들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 오늘도 그들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영혼들을 찾아 다니고 있는데,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침묵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단전문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무력해질 수 있도록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능동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단 신천지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신천지에 대한 연구에 힘써야 한다. 신천지는 그들 나름의 체계적

인 성경공부와 견고한 교리체계로 무장되어 있고, 무엇보다 교활하다 할 정도로 교회에 몰래 잠입해 교회와 성도들을 잠식해가는 비성서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들만의 포교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포교방식과 성경공부 방식 등을 목회자가 먼저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신천지에 대해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가 신천지에 빠진 성도를 회유하는데에 있어 신천지의 비유풀이와 교리의 문제점들에 대해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들을 토대로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교인들을 철저히 이단과 신천지에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해서 더 이상 신천지로 인해 잃어버린 양들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단의 회개와 말씀의 회복이다. 즉 성서의 본질적 가르침에서 벗어나 설교했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회개가 시급하고,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문말씀의 핵심과 본질보다 목회자 개인의 입지를 위해 성도들의 필요를 과도하게 강조하여 성경 본문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일관하는 설교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그러한 설교는 당장에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는 있지만, 청중들을 복음의 본질과 성숙된 신앙으로 인도하기는 어렵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회심한 그들이 설교를 통해서 원했던 것은 삶의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본인들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대한 깊은 좀 더 깊은 해석과 말씀의 조명에 따른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신앙적인 실천방안들을 목회자가 제시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과 거짓, 정통과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궁극적 규범은 성경 말씀이고, 이단을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해, 깨달음에 따른 실천, 그리고 그 실천에 따름으로 인한 신앙적 보람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말씀의 회복과 말씀의 실천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이어서 한국 교회가 현재 신천지에 대해 교육하고 예방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는 만큼이나, 또한 중요한 것은 '신천지로부터 회심하여 돌아온 잃었던 성도를 어떻게 목회적 돌봄을 하는 것인가'이다. 신천지로부터 회심하여 돌아온 성도들은 교회에 돌아와도 보통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3년의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목회자는 신천지로부터 회심하여 돌아온 성도를 인내와 사랑으로 보살피고, 교육하며,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심한 성도는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신천지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 회심한 성도를 위한 목회적 돌봄은 반드시 정착 되어야 하고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천지로부터 회심한 성도를 위해 목회자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성서해석 비판을 한 후 바른 교리와 바른 성서해석을 할 수 있도록 후속교육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회심한 성도를 위한 1:1 맞춤식 성경공부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회심한 성도가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회심한 성도를 위한 상담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회심한 성도들이 신천지에서 느꼈던 영적 돌봄 이상으로 교회 내에서 자신들을 향한 뜨거운 영적 지원과 돌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회심한 성도를 위한 영적 돌봄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더불어 회심한 성도들을 모아 소통하고 위로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치유 공동체 구성과 회심한 성도를 위한 간증 프로그램, 회심한 성도와 함께 이단경계주일 계획 및 실행, 회심한 성도와 함께 이단대처팀 조직, 회심한 성도의 가족을 위한 교육과 돌봄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모든 시스템들을 단 시간 내에 계획하고 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회심한 성도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시스템 구성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고, 한 영혼의 소중함과 그 소중함의 무게를 목회자가 가지고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구성해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막8:36)고 말씀하셨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신천지의 모략에 속아서 거짓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신천지의 거짓됨을 깨닫고 회심하여 돌아온 이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한서]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_____.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_____. *용서에 대하여.* 서울: 동녘, 2017.

김덕연, 최삼경, 진용식, 정운기, 강신유, 이덕술, 이인규, 장연주, 임웅기, 신현욱, 강성호, 엄승욱, 김미경, and 정윤석. *이단 신천지 대처법 A to Z.* 경기도: 기독교포털뉴스, 2013.

김영무, and 김구철. *이단과 사이비.* 서울: 아가페문화사, 2012.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2010.

노길명. *한국의 신흥 종교.* 서울: 가톨릭신문사, 199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주요이단대책종합자료집.* 서울: 총회본부교육국, 2008.

___________________. *우리 주변의 이단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___________________. *종합 이단, 사이비 연구보고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서춘웅. *교회와 이단.* 서울: 크리스챤서적, 2010.

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유영권. *기독(목회)상담학.* 서울: 학지사, 2014.

이대복. *이단 종합 연구.* 서울: 큰샘출판사, 2008.

이만희. *천국 비밀계시록의 진상.* 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85.

_____. *천국 비밀계시록의 진상 2.* 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93.

_____. *계시.* 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93.

_____. *계시록의 실상.* 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93.

_____. *천국비밀 요한계시록 실상.* 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93.

_____. *성도와 천국.* 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95.

_____. *만국소성회 영핵.* 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96.

_____. *신천지 발전사.* 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97.

_____. *천국비밀 계시.* 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98.

_____.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과천: 도서출판 신천지, 2005.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이단사이비를 경계하라.*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출판부, 2015.

이만희, and 진용식. *무료 성경 신학원 이단 논쟁.* 전북: 성산, 2007.

이병욱. *정신분석으로 본 한국인과 한국 문화.* 서울: 소울메이트, 2013.

이원규. *인간과 종교.* 경기도파주: 나남, 2006.

장관섭. *최근 이단들의 동향.* 서울: 도서출판리폼드, 2004.

정동섭. *이단과 정통 무엇이 다른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3.

진용식. *무료성경신학원 이만희-무료 성경 신학원의 정체.* 서울: 월간현대종교, 1999.

_____. *무료성경신학원 이만희의 실체는?.* 전북: 성산, 2008.

_____, 정윤석, and 장운철. *신천지 포교전략과 이만희 신격화교리.* 서울: 한국교회문화사, 2007.

정행업. *한국교회에 나타난 이단 논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탁지원. *무료성경신학원 이만희.* 서울: 월간현대종교, 1993-1999.

_____. *한국의 종교단체 실태 개요.* 서울: 월간현대종교사, 2000.

_____.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 서울: 국종출판사, 2008.

탁지일. *교회와 이단.* 서울: 두란노서원, 2016.

총회이단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김인환 and 심창섭. *기독교정통과 이단 무엇이 다른가.* 서울: 대한예장총회, 2012.

최중현. *한국 메시아 운동사 연구.* 서울: 생각하는백성, 1999.

현대종교편집국. *한국의 신흥 종교*, 서울: 월간현대종교, 2002.

_____________. *이단 바로 알기*, 서울: 월간현대종교, 2010.

_____________. *한국의 신흥종교: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서울: 대성인쇄사, 2007.

_____________. *한국의 신흥종교: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서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200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이단 사이비 연구 종합자료 II.* 서울: 한국교회문화사, 2007.

한창덕. *한 권으로 끝내는 신천지 비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허호익, *한국의 이단 기독교.* 서울: 동연, 2016.

[번역서]

Seidman, Irving.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Third Edition)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Translated by 박혜준 and 이승연. 서울: 학지사, 2013.

McDowell, Josh and Don Stewart. *Understanding the Cult 이단종파*. Translated by 이호열. 서울: 기독지혜사, 2000.

Freud, Sigmund. *Massenpsychologie und Ich-Analyse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Translated by 이상률. 서울: 지도리, 2013.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Psychoanalytic Terms & Concepts 정신분석 용어사전*. Translated by 이재훈, 문미희, 신은향, 권혜경, 우재현.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Hall,C.S.*Vorlesungen zur Einfuhrung in die Psychoanalyse 프로이트심리학연구*. Translated by 이영호. 서울: 큰방, 2012.

Aronson, Elliot. Timothy D. Wilson, and Robin M. Akert. *Social Psychology (8th Edition) 사회심리학*. Translated by 박권생, 이재호, 최윤경, 김민영.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5.

David F. Wells. *No Place for Truth 신학 실종*. Translated by 김재영.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0.

[참고논문]

강신유. “신천지교도의 이단경험과 탈퇴과정에 관한 연구.” PhD diss.,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0.

김낙경. “신천지 이단을 대처하는 요한계시록 설교의 방향성.” PhD diss.,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3.

김성중. “신천지의 이단성과 그 대응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2011.

김종한. “이단교주의 ‘인간보혜사’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천지를 중심으로.” PhD diss.,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1.

신영주. “신천지교리와 피해에 대한 한국교회 대처연구.”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11.

임웅기. “한국 개신교계 신종교의 윤리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8.

[학술논문]

구수현. “파수꾼의 외침; 신천지교회, 기성교인 미혹이 극심하다-선교회, 선교사 사칭하며 접근하는 신천지의 포교전략.” *활천* 611 (April, 2004): 24-25.

김정수. “신천지를 경계하라; 신천지 그들은 누구인가.” *활천* 649 (December, 2007): 16-21.

박문수.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활천* 699 (February, 2012): 58-59.

_____.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오른 눈과 오른 팔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고 찍어 버리라는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활천* 706 (September, 2012): 50-51.

_____. “신천지를 경계하라: 신천지교리의 허구성.” *활천* 649 (December, 2007): 22-27.

_____.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신천지 접근질문을 마치며(최종호).” *활천* 710 (January, 2013): 56-57.

_____.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종말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짐승은 무엇입니까.” *활천* 704 (July, 2012): 52-53.

_____.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천국 혼인잔치 때 준비해야 할 혼인예복은 무엇인가?.” *활천* 695 (October, 2011): 58-59.

_____.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타고 오시는 구름은 무엇일까.” *활천* 691 (June, 2011): 62-63.

_____. "신천지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다; 천국이 "씨로 된 나무와 같다"라고 한 것을 아십니까." *활천* 690 (May, 2011): 62-63.

_____. "신천지는 이런 질문을 접근한다; 666이 성경적으로 정확히 무엇입니까." *활천* 694 (September, 2011): 60-61.

_____. "신천지의 왜곡된 성경해석과 교리교육의 필요." *활천* 730 (September, 2014): 26-31.

박종삼. "한국기독교와 사이비이단운동: 사이비이단 발생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한국기독교연구논총* 8 (1995), 351-86.

박태수. "복음방 교육에 나타난 신천지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신학연구* 21 (November, 2014): 169-296.

안희환. "최근 한국교회 이단연구: 인터넷에서 신천지의 기독교 비방활동." *성결교회와 신학* 31 (June, 2014): 146-58.

이희성. "신천지 구약 해석의 실상과 허상." *개혁논총* 30 (June, 2014): 93-126.

임병우. "신천지를 경계하라; 인터뷰: 신천지, 예방이 최선입니다." *활천* 649 (December, 2007): 14-15.

정동섭. "교회는 이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월간목회* 471 (November, 2015): 150-51.

정창균. "신천지 이단의 성경해석과 설교적 대응." *설교한국* 4, no. 1 (May, 2012): 27-76.

진용식. "신천지를 경계하라; 신천지로 인한 피해와 그 회복." *활천* 649 (December, 2007): 28-33.

최윤배. "기독교 교리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조직신학연구* 20 (October, 2014): 140-161.

탁지원. "한국교회의 이단의 실태 및 대처방안." *교육교회* 290 (December, 2001), 1.

탁지일. "[이단 바로 알기]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 *새가정사* 56 (November, 2009): 92-95.

_____. "교육으로 만나는 목회: 이단에 대한 바른 이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교육교회* 397, no. 5 (2011): 40-45.

_____. "이단에 대한 바른 이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교육교회* 399 (March, 2011): 40-45.

_____. "교육으로 만나는 목회: 이단에 대한 바른 이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교육교회* 397 (May, 2011): 40-45.

_____. "마지막(종말)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실적 교회, 종말론적 이단을 만나다! 하

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를 중심으로." *교육교회* 429 (December, 2013): 22-26.

허호익. "신천지의 교리와 교회 침투 전략," *신학과문화* 19 (May, 2010): 125-53.

활천사 편집부. "신천지를 경계하라; 교회 파괴 비밀 프로젝트: 신천지의 산 옮기기 작전." *활천* 649 (December, 2007): 34-42.

[인터넷 사이트, 기사 및 기타]

박윤경. "사이비 신천지 규탄대회 9 일 개최." *CBS 노컷뉴스*, August 7, 2015. http://www.nocutnews.co.kr/news/4455249.

백상현. "신천지를 말한다(4) 반사회적인 집단: 신천지에 빠진 후 돌변,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국민일보*, April 10, 201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070668.

송주열. "사병 총기 자살 시도 알고 보니..신천지 빠진 엄마 때문." *CBS 노컷뉴스*, March 24, 2015. http://www.nocutnews.co.kr/news/4387556.

_____. "신천지를 고발합니다.. '학원법위반' 고발장 접수." *CBS 노컷뉴스*, March 13, 2015. http://www.nocutnews.co.kr/news/4382354.

쉴터 (블로그).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특별좌담(중)*. http://sdcmd.egloos.com/76131.

이인창, "대전 MBC '누구를 위한 신천지인가?" *뉴스파워,* June 14, 2008. http://www.tjmbc.co.kr/.

정윤석. "한국교회에 가장 큰 피해주는 이단, 신천지." *기독교포털뉴스*, February 13, 2014. http://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7.

최문선 and 서상현. " '국회가 정해달라' 퇴진마저 떠넘긴 朴대통령." *한국일보,* November 30, 2016. http://hankookilbo.com/v/a1713b7e779c4df88cd603c8cb5520f8.

허호익. "우리 시대의 거짓선지자들-신천지의 교리와 교리 침투 전략." *교회와 신앙*, April 25, 2008. http://www.amennew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8566.

MBC. "신천지 수상한 비밀." PD수첩. Accessed November 17, 2016.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36100305100000.